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NABO World Economy Trends & Issues

CONTENTS

축사 | 우원식 국회의장

창간사 |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세계경제 동향

주요 선진경제 동향

주요 신흥경제 동향

대외경제 이슈 |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저성장 리스크 비교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총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 승 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강 은 정 경제분석관

작성 | 예 승 우 경제분석총괄과장
황 진 솔 경제분석관
김 경 수 경제분석관
이 두 영 경제분석관
강 은 정 경제분석관

지원 | 이 인 희 행정실무원
윤 지 혜 자료분석연구원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boo

대외경제동향 & 이슈

C O N T E N T S

축사	2
창간사	4

I — 세계경제 동향	
1. 경제 동향	14
2. 금융시장 동향	16

II — 주요 선진경제 동향	
1. 미국	21
2. 유로지역	27
3. 일본	32

III — 주요 신흥경제 동향	
1. 중국	36
2. 브라질	40
3. 러시아	44
4. 인도	48
5. 베트남	52

IV — 대외경제 이슈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58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오늘날 경제는 국가 단위를 넘어,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에 근접하고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0%를 넘는 개방형 경제입니다. 대외경제적 요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세계 경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큼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지원법 축소 폐지 움직임이 보여주듯,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국의 경제정책 결정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회도 글로벌 시각에서 대외경제 여건을 이해하고,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와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창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계간으로 발간될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는 글로벌 금융 시장과 주요 국가의 경제 동향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한 최신 이슈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경제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의사결정을 돕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대외경제 동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국회의장 **우 원 식**

창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기술진보 및 디지털화, 기후변화 등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대외경제여건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여건도 급변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경제의 대응 방향과 중점과제를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의 경제·금융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가 대외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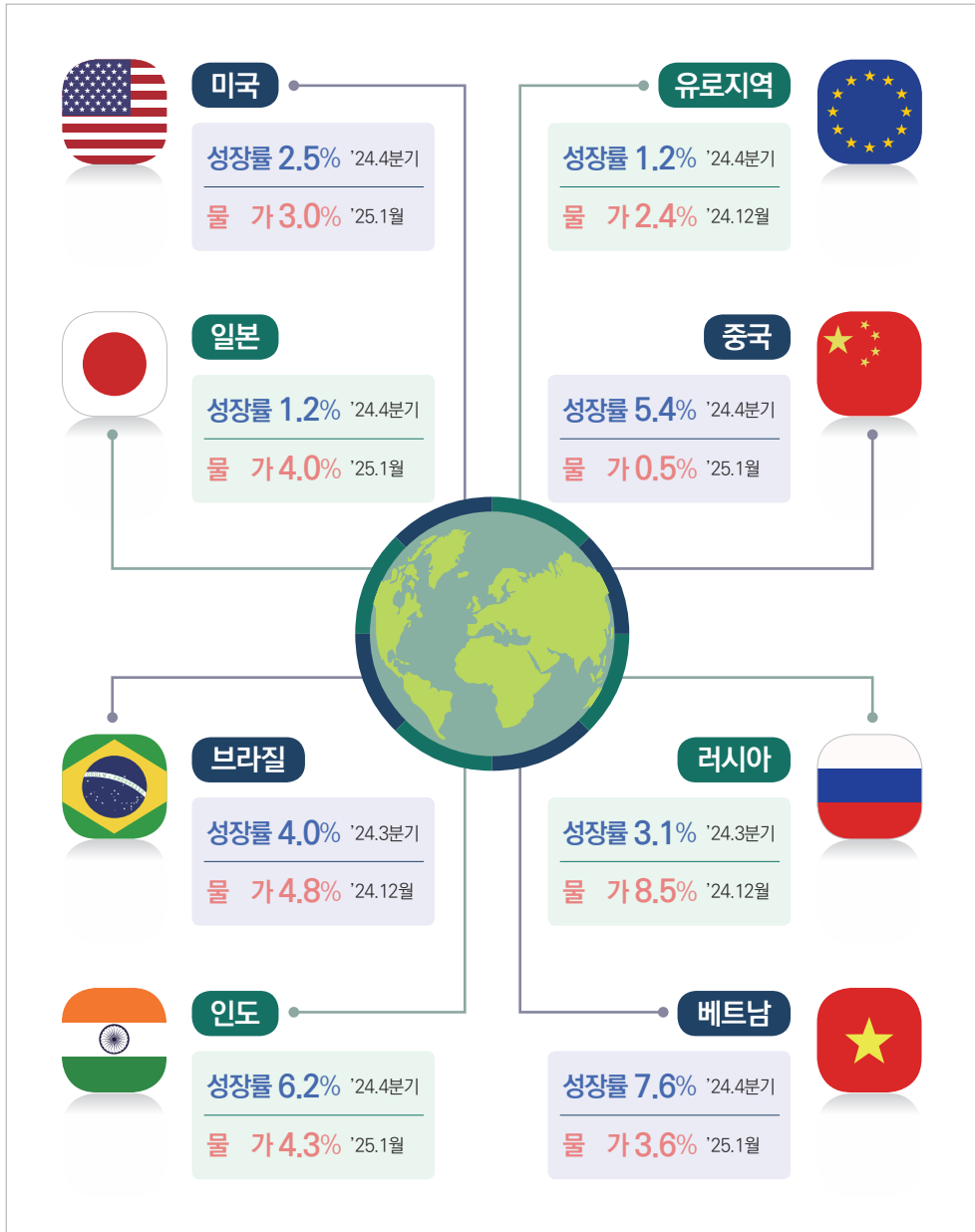
2025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I

대외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주: 2024년 4분기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2.3% 성장, 유로지역은 전기대비 0.2% 성장, 일본은 전기대비 0.7% 성장

I

세계경제 동향 종합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

- 세계 교역과 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는 완만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가 상승하는 양상
-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

■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는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

- 2월말 미국,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 2월말 미국 주가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였으나, 유럽과 중국은 각각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 전 세계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달러화와 위안화 가치 소폭 하락
- 글로벌 상품가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품목별 혼조

■ (선진경제)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유로지역, 일본 등은 성장속도가 둔화

- (미국) 경제의 연착륙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유로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정체
- (일본) 4분기에는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월 들어 회복

■ (신흥경제) 신흥국은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로 성장속도가 상이

- (중국) 생산 및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
- (브라질)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수출이 부진
-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 (인도) 2024년 4분기에는 민간소비 및 수출에 힘입어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이 감소세
- (베트남) 수출 호조 및 FDI 유입으로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I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가. 세계경제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연간	연간	1Q	2Q	3Q	4Q
미국	경제성장률 ¹⁾	2.9	2.8	1.6	3.0	3.1	2.3
	산업생산	0.2	-0.3	-0.6	0.2	-0.3	-0.4
	소비자물가	4.1	2.9	3.2	3.2	2.6	2.7
	실업률	3.6	4.0	4.1	3.8	4.3	3.9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²⁾	0.5	0.8	0.3	0.2	0.4	0.2
	산업생산	-1.7	-2.9	-4.6	-3.8	-1.6	-1.6
	소비자물가	5.4	2.4	2.6	2.5	2.2	2.2
	실업률	6.6	6.4	6.8	6.3	6.2	6.1
일본	경제성장률 ²⁾	1.5	0.1	-0.5	0.7	0.4	0.7
	산업생산	-1.3	-2.3	-4.0	-3.0	-1.4	-1.0
	소비자물가	3.3	2.7	2.5	2.7	2.8	2.9
	실업률	2.6	2.5	2.5	2.6	2.5	2.5
중국	경제성장률	5.2	5.0	5.3	4.7	4.6	5.4
	산업생산	4.6	5.8	6.1	5.9	5.0	5.6
	소비자물가	0.2	0.2	0.0	0.3	0.5	0.2
	실업률	3.4	3.4	3.5	3.4	3.3	3.3
브라질	경제성장률	3.2	-	2.6	3.3	4.0	-
	산업생산	0.1	3.1	2.0	3.3	3.9	3.1
	소비자물가	4.6	4.4	4.3	3.9	4.4	4.8
	실업률	8.0	6.9	7.8	7.2	6.6	6.2
러시아	경제성장률	3.6	-	5.4	4.1	3.1	-
	산업생산	4.3	4.5	5.3	4.0	2.8	5.6
	소비자물가	5.9	8.5	7.6	8.3	8.9	9.0
	실업률	3.2	2.5	2.8	2.5	2.4	2.3
인도	경제성장률	7.6 ³⁾	9.2 ³⁾	8.4	6.5	5.6	6.2
	산업생산	5.8	4.3	5.1	5.5	2.7	3.9
	소비자물가	5.7	5.0	5.0	4.9	4.2	5.6
	실업률	8.2	8.0	7.7	8.1	8.0	8.1
베트남	경제성장률	5.1	7.1	6.0	7.3	7.4	7.6
	산업생산	-11.4	9.5	8.2	12.4	10.3	7.2
	소비자물가	3.3	3.6	3.8	4.4	3.5	2.9
	실업률	2.3	2.3	2.2	2.3	2.2	2.2

주: 1) 전기대비연율(%)

2) 전기대비(%)

3) 2022/23년, 2023/24년 회계연도 기준

4) 실업률은 기간평균

자료: Bloomberg, CEIC, IMF, Oxford Economics

I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1Q	2Q	3Q	4Q	1월	2월
정책 금리 (%)	미국	5.23	5.27	5.50	5.50	5.00	4.50	4.50	4.50
	유로존	3.80	4.13	4.50	4.25	3.65	3.15	2.90	2.90
	일본	-0.10	0.13	0.10	0.10	0.25	0.25	0.50	0.50
	중국	3.55	3.34	3.45	3.45	3.35	3.10	3.10	3.10
	브라질	13.25	10.96	10.75	10.50	10.75	12.25	13.25	13.25
	러시아	10.38	17.83	16.00	16.00	19.00	21.00	21.00	21.00
	인도	6.48	6.50	6.50	6.50	6.50	6.50	6.50	6.25
	베트남	3.38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한국	3.50	3.40	3.50	3.50	3.50	3.00	3.00	2.75
장기 금리 (국채 10년, %)	미국	4.0	4.2	4.2	4.4	3.8	4.6	4.5	4.2
	독일	2.4	2.3	2.3	2.5	2.1	2.4	2.5	2.4
	일본	0.6	0.9	0.7	1.1	0.9	1.1	1.2	1.4
	중국	2.7	2.2	2.3	2.2	2.2	1.7	1.6	1.8
	브라질	7.1	6.9	11.1	12.3	12.4	15.2	14.8	15.3
	러시아	11.3	14.5	13.3	15.0	15.9	15.2	16.5	15.5
	인도	7.2	7.0	7.1	7.0	6.7	6.8	6.7	6.7
	베트남	3.3	2.8	2.7	2.9	2.8	3.1	3.1	3.2
	한국	3.6	3.2	3.4	3.3	3.0	2.9	2.9	2.7
주가 (포인트)	미국 DJIA	34,122	40,335	39,807	39,119	42,330	42,544	44,545	43,841
	독일 DAX	15,667	18,388	18,492	18,235	19,325	19,909	21,732	22,551
	일본 NIKKEI	30,717	38,387	40,369	39,583	37,920	39,895	39,572	37,156
	중국 상해종합	3,176	3,059	3,041	2,967	3,336	3,352	3,251	3,321
	브라질 BOVESPA	114,198	128,245	128,106	123,907	131,816	120,283	126,135	122,799
	러시아 MOEX	2,791	3,013	3,333	3,151	2,858	2,883	2,948	3,200
	인도 SENSEX	63,648	77,226	73,651	79,033	84,300	78,139	77,501	73,198
	베트남 VN30	1,114	1,283	1,297	1,278	1,353	1,345	1,338	1,356
	한국 KOSPI	2,499	2,632	2,747	2,798	2,593	2,399	2,517	2,533
환율	달러/유로	1.08	1.08	1.08	1.07	1.12	1.04	1.04	1.04
	일본 엔/달러	140	152	151	161	142	158	155	150
	중국 위안/달러	7.08	7.18	7.22	7.27	7.02	7.30	7.24	7.28
	브라질 헤알/달러	4.99	5.39	5.02	5.50	5.43	6.18	5.88	5.84
	러시아 루블/달러	85.3	92.7	92.4	85.7	92.7	101.7	98.0	87.7
	인도 루피/달러	82.6	83.7	83.4	83.5	83.8	85.6	86.6	87.4
	베트남 동/달러	23,833	25,065	24,003	24,260	24,093	24,335	24,325	24,726
	한국 원/달러	1,305	1,364	1,347	1,389	1,320	1,470	1,433	1,440
	달러 인덱스	103.4	104.2	103.7	105.2	101.0	107.2	108.7	107.3
상품	CRB지수	546	535	536	539	540	537	542	539
	국제유가 ³⁾	80.6	79.2	84.3	82.3	72.4	72.5	78.2	74.4
금융위험 지표	경제 불확실성 지수	242	238	177	215	223	377	430	-
	미국 신용스프레드(%p)	1.9	1.6	1.5	1.6	1.6	1.4	1.5	1.6
	신중국 채권 가산금리(%p)	3.9	3.6	2.9	4.0	3.9	3.6	3.5	3.7

주: 1)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2) 유로중앙은행(ECB) 기준금리는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미 Baa 회사채와 미 10년 국채 수익률 차, 신중국 채권 가산금리는 J.P. Morgan EMBI+를 의미

3) WTI, Dubai, Brent 3종 평균

자료: 한국은행, CEIC, FRED, Bloomberg, Haver



세계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

- (생산) 2024년 4분기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전기대비 1.0%) 증가
- (교역) 2024년 4분기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4%(전기대비 1.2%) 증가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다가 2024년 10월부터 다시 상승
- (불확실성) '25.1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EPU)는 430으로 '24.11월부터 큰 폭 상승

■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유로존 국채(10년) 금리 하락, 선진국 주가 하락 및 신흥국 주가 상승, 달러인덱스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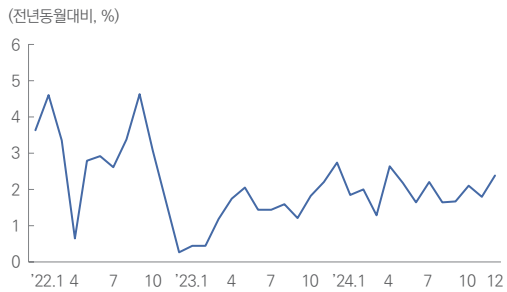
- 2월말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0.1%p 상승
- 2월말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0.8% 하락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0.4% 상승
- 2월말 달러인덱스는 전월말 대비 1.3% 하락
- 국제원자재가격(CRB) 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하였으나 품목별 혼조

01 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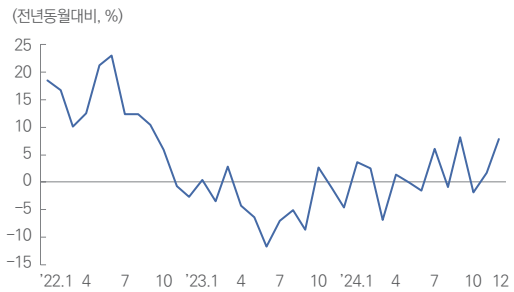
- (성장)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유로지역, 중국 등은 회복세가 저조
 - IMF('25.1월)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4년 3.2%, 2025년 3.3%로 전망하였으며, 선진국의 2025년 성장률은 1.9%, 신흥국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¹⁾
- (생산) 2024년 4분기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1%(전기대비 1.0%) 증가
 - 세계 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 %): ('24.2분기) 2.1 → (3분기) 1.8 → (4분기) 2.1
- (교역) 2024년 4분기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4%(전기대비 1.2%) 증가
 - 세계 교역규모(전년동기대비, %): ('24.2분기) -0.1 → (3분기) 4.3 → (4분기) 2.4

| 그림 1 | 세계 산업생산



주: 계절 조정
자료: World Bank

| 그림 2 | 세계 교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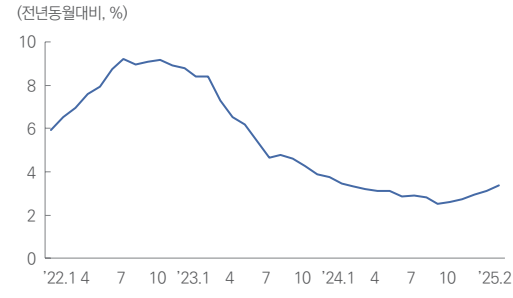


주: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
자료: World Bank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Growth: Divergent and Uncertain" (Januar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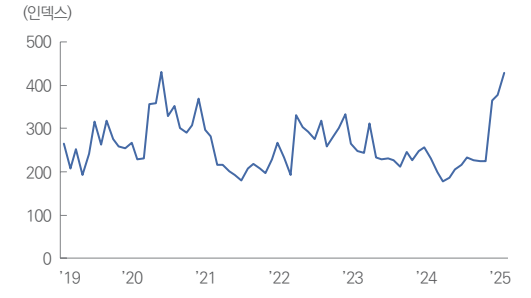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다가 '24.10월부터 다시 상승
 - 세계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2월) 2.9 → ('25.1월) 3.1 → (2월) 3.0
- (불확실성) '25.1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EPUI)²⁾는 430으로 '24.11월부터 큰 폭 상승
 -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인덱스): ('24.10월) 224 → (11월) 365 → (12월) 377 → ('25.1월) 430

| 그림 3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가중 중간값(weighted median), 계절조정
자료: World Bank

| 그림 4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주: 장기평균(1997~2015)=100
자료: Baker et al.(2016)

2)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Scott R. Baker, Steven J. Davis and Nicholas Bloom(2016)이 29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로 지수가 높아지면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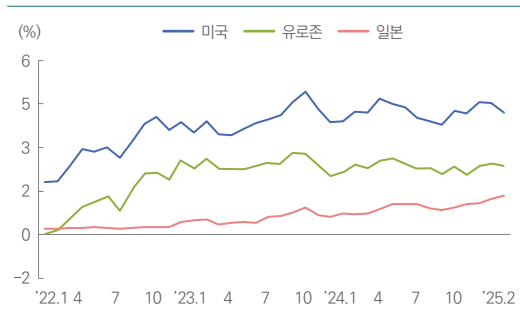
02 금융시장 동향

가. 채권시장

■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채(10년물) 금리는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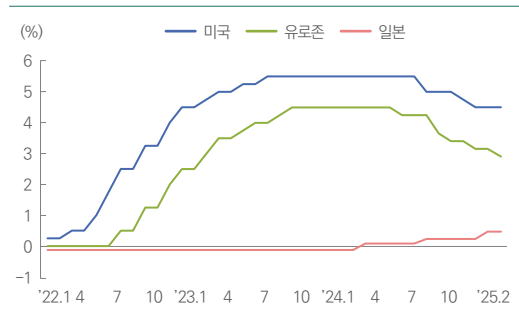
- 2월말 미국,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물가상승률 우려 완화, 경기둔화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등에 따라 소폭 증가
 - 미국 국채 10년물(%): ('24.12월) 4.6 → ('25.1월) 4.5 → (2월) 4.2
 - 유로존 국채 10년물(%): ('24.12월) 2.4 → ('25.1월) 2.5 → (2월) 2.4
 - 일본 국채 10년물(%): ('24.12월) 1.1 → ('25.1월) 1.3 → (2월) 1.4
- 미 연방준비제도(FRB)는 2025년 1월 정례회의(FOMC)에서 기준금리(FFR)를 동결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하 기조, 일본은행(BOJ)은 인상 기조 지속
 -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전망하여,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전망이다³⁾
 -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2월, 3월 기준금리(refinancing rate)를 각각 0.25%p 인하
 - 일본은행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1월 기준금리 0.25%p 인상

| 그림 5 | 주요국 국채(10년)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 그림 6 | 주요국 기준금리



주: 유럽중앙은행은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기준
자료: Morning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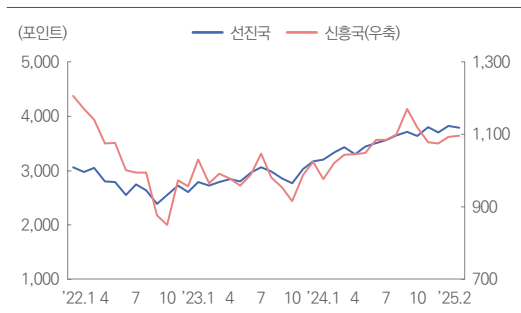
3) 미 연방준비제도, "정례회의(FOMC) 전망보고서", 2024. 12.18.

나. 주식시장

■ '25.2월말 전세계 주가는 선진국은 하락, 신흥국은 소폭 상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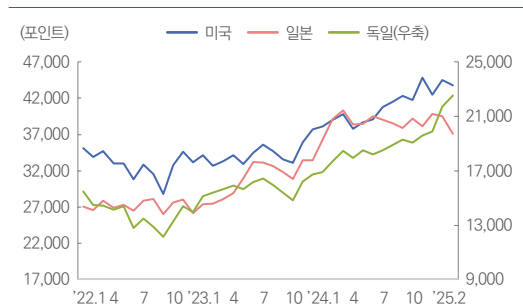
- 2월말 선진국 주가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월말 대비 0.8% 하락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로 0.4% 상승
- 미국과 일본의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독일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 미국 다우존스지수(포인트): ('24.12월) 42,544 → ('25.1월) 44,545 → (2월) 43,841
 - 일본 니케이지수(포인트): ('24.12월) 39,895 → ('25.1월) 39,572 → (2월) 37,156
 - 독일 닥스지수(포인트): ('24.12월) 19,909 → ('25.1월) 21,732 → (2월) 22,551

| 그림 7 | 글로벌 주가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 그림 8 | 주요국 주가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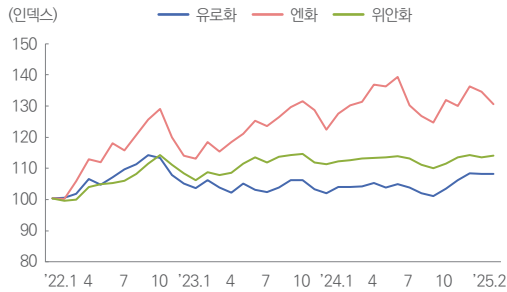
4)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다. 외환시장

■ '25.2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유로화와 엔화 하락, 위안화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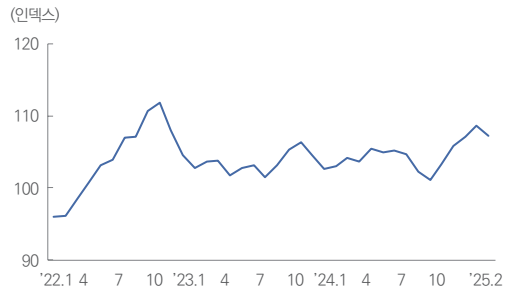
- 전 세계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달러화와 위안화 가치 소폭 하락
 - 2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엔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0.13%, 2.93% 하락, 위안화는 0.38% 상승
 - 달러인덱스⁵⁾는 전월말 대비 1.3% 하락

| 그림 9 | 주요국 통화의 대미 환율



주: 1) 2022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10 | 달러인덱스



주: 1973년3월=100
 자료: Bloomberg

라. 상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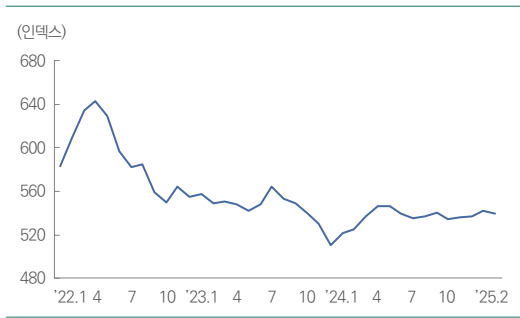
■ 글로벌 상품가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품목별 혼조

- '25.2월 국제원자재(CRB) 지수⁶⁾는 539.2로 전월대비 0.5% 하락
 - CRB 지수(인덱스): ('24.12월) 536.5 → ('25.1월) 542.0 → (2월) 539.2
- '25.2월 국제유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 WTI(달러/배럴): ('24.12월) 70.2 → ('25.1월) 75.7 → (2월) 71.5
 - Dubai(달러/배럴): ('24.12월) 74.0 → ('25.1월) 80.8 → (2월) 78.2
 - Brent(달러/배럴): ('24.12월) 73.2 → ('25.1월) 78.2 → (2월) 75.2

5)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1973년3월=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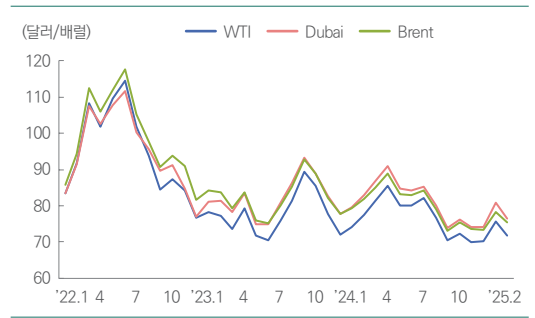
6)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지수는 곡물, 원유(WTI), 천연가스,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19개 주요 상품선물가격을 가중치에 따라 평균한 것으로 상품가격의 전반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 품목별 가중치는 에너지(39%), 농산물(41%), 귀금속(7%), 산업용 금속(13%)

| 그림 11 | 국제원자재(CRB) 지수



주: 1967년=100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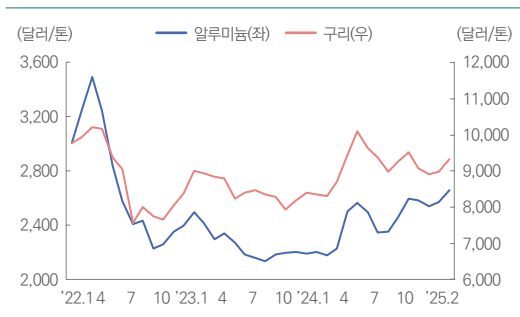
| 그림 12 | 국제유가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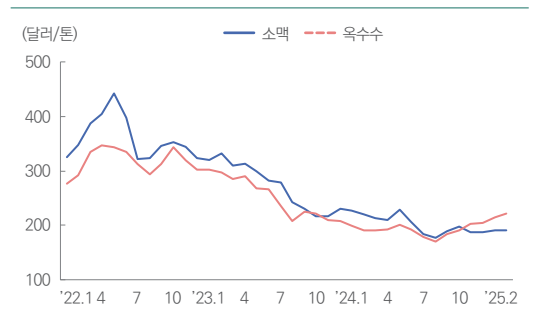
- '25.2월 주요 비철금속 선물가격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알루미늄(달러/톤): ('24.12월) 2,541 → ('25.1월) 2,571 → (2월) 2,656
 - 구리(달러/톤): ('24.12월) 8,910 → ('25.1월) 8,977 → (2월) 9,331
- '25.2월 주요 곡물 선물가격은 생산지의 기상 악화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소맥(달러/톤): ('24.12월) 186 → ('25.1월) 191 → (2월) 190
 - 옥수수(달러/톤): ('24.12월) 203 → ('25.1월) 214 → (2월) 221

| 그림 13 | 주요 비철금속 가격



자료: 런던금속거래소(LME)

| 그림 14 | 주요 곡물가격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요 선진경제 동향

■ (미국)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경제성장률(전기대비연율, %): ('24.2분기) 3.0 → (3분기) 3.1 → (4분기) 2.3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0.9 → (12월) 0.3 → ('25.1월) 2.0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4.0 → (12월) 4.4 → ('25.1월) 4.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5.1 → (12월) -1.2 → ('25.1월) 2.0
- 실업률(%): ('24.11월) 4.0 → (12월) 3.8 → ('25.1월) 4.4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4.11월) 2.7 → (12월) 2.9 → ('25.1월) 3.0

■ (유로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정체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4.2분기) 0.2 → (3분기) 0.4 → (4분기) 0.2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1.1 → (11월) -1.7 → (12월) -2.5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2.1 → (11월) 1.6 → (12월) 1.9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2.4 → (11월) -1.4 → (12월) 3.1
- 실업률(%): ('24.11월) 6.2 → (12월) 6.2 → ('25.1월) 6.2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4.10월) 2.0 → (11월) 2.2 → (12월) 2.4

■ (일본) 2024년 4분기에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5.1월 들어 회복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4.2분기) 0.7 → (3분기) 0.4 → (4분기) 0.7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1.9 → (12월) -3.2 → ('25.1월) 2.6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2.8 → (12월) 3.5 → ('25.1월) 3.8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3.8 → (12월) 2.8 → ('25.1월) 7.3
- 실업률(%): ('24.11월) 2.5 → (12월) 2.5 → ('25.1월) 2.5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9 → (12월) 3.6 → ('25.1월) 4.0

01 미국

미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2.3% 성장

- 4분기 성장률은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성장, 2024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8% 성장
- 소비지출(4.2%)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정부지출(2.9%)이 증가하였으나, 투자(-5.7%) 및 수출입(각각 -0.5%, -1.2%)이 감소

■ 2024년 3분기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

- 3분기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전기대비 3.8% 성장
- 농림어업(-7.8%)과 제조업(-0.2%)은 감소하였으나, 광업(1.3%), 건설업(3.2%), 서비스업(3.8%)은 증가

표 1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23년	202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2.9	2.8	1.6	3.0	3.1	2.3
농림어업	3.8	-	5.6	23.8	-7.8	-
광업	33.6	-	-10.5	-4.9	1.3	-
제조업	-2.3	-	8.3	5.2	-0.2	-
건설업	0.3	-	-6.5	8.2	3.2	-
서비스업	3.2	-	2.9	2.4	3.8	-
소비지출	2.5	2.8	1.9	2.8	3.7	4.2
민간투자	0.1	4.0	3.6	8.3	0.8	-5.7
수출	2.8	3.2	1.9	1.0	9.6	-0.5
수입	-1.2	5.4	6.1	7.6	10.7	-1.2
정부지출	3.9	3.4	1.8	3.1	5.1	2.9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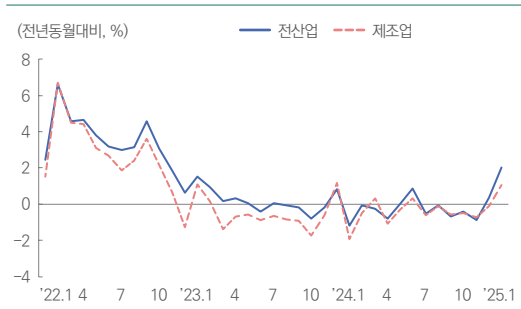
■ (생산) '25.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0.9 → (12월) 0.3 → ('25.1월) 2.0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0.7 → (12월) -0.1 → ('25.1월) 1.0

■ (소비) '25.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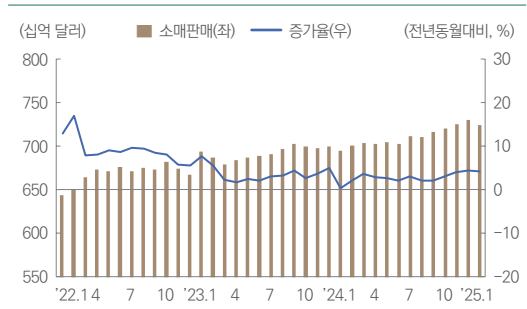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4.0 → (12월) 4.4 → ('25.1월) 4.2

| 그림 1 | 산업생산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 그림 2 |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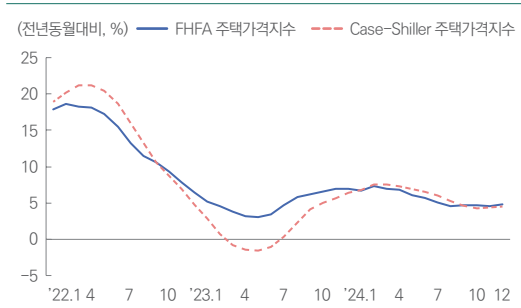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 (주택시장) '24.12월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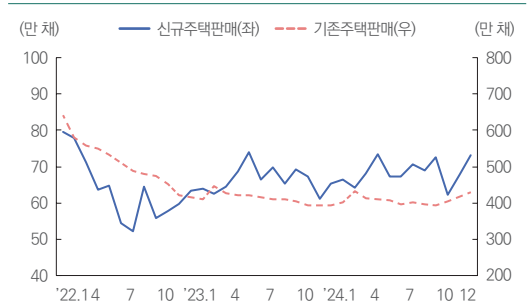
- FHFA 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4.10월) 4.6 → (11월) 4.5 → (12월) 4.7
- (주택판매) '24.12월 신규주택판매는 73만채로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기존주택판매는 429만채로 10.6% 증가
 - 신규주택판매(만채): ('24.10월) 62 → (11월) 68 → (12월) 73
 - 기존주택판매(만채): ('24.10월) 396 → (11월) 415 → (12월) 429

| 그림 3 | 주택가격지수



자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Case-Shiller

| 그림 4 | 신규 및 기존주택판매



자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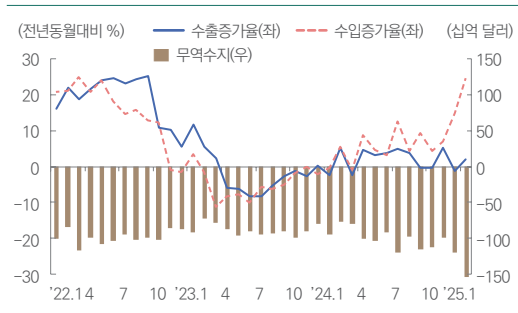
■ (교역) '25.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수입」은 24.6% 증가, 「무역수지」는 1,545억 달러 적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5.1 → (12월) -1.2 → ('25.1월) 2.0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1월) 7.1 → (12월) 15.0 → ('25.1월) 24.6
- 무역수지(억 달러): ('24.11월) -997 → (12월) -1,200 → ('25.1월) 1,545

■ (노동시장) '25.1월 「실업률」은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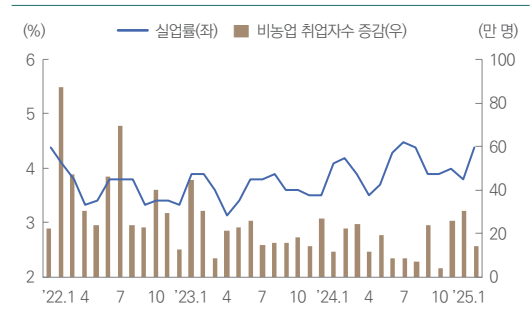
- 실업률(%): ('24.11월) 4.0 → (12월) 3.8 → ('25.1월) 4.4
- '25.1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4.3만명 증가하면서 전월치 대비 하락
 -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전월대비, 만명): ('24.11월) 26.1 → (12월) 30.7 → ('25.1월) 14.3

| 그림 5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 그림 6 | 실업률 및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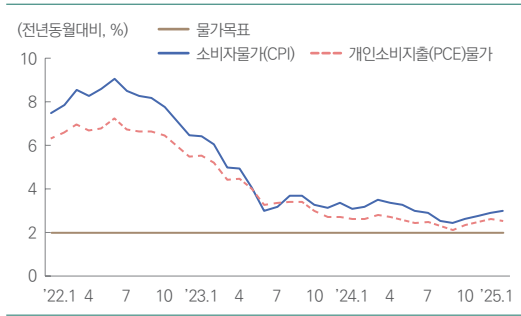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BLS)

■ (물가) '25.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0%로 전월대비 0.1%p 감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7 → (12월) 2.9 → ('25.1월) 3.0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p): (식음료) 0.4 (주거) 1.7 (교통) 0.5 (의료) 0.2
- PCE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5 → (12월) 2.6 → ('25.1월) 2.5
- 근원PCE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8 → (12월) 2.9 → ('25.1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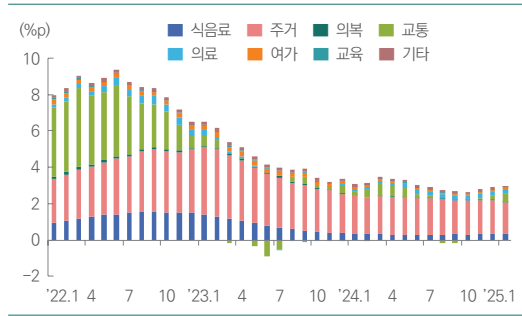
7)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물가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물가지수로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

| 그림 7 | 물가상승률 및 목표¹⁾



주: 1) 미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경제분석국(BEA)

| 그림 8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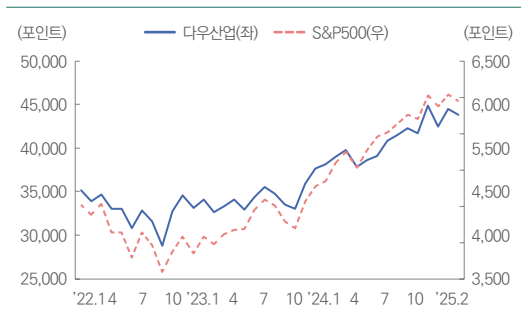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 (금융) 2월말 「주가지수」, 「금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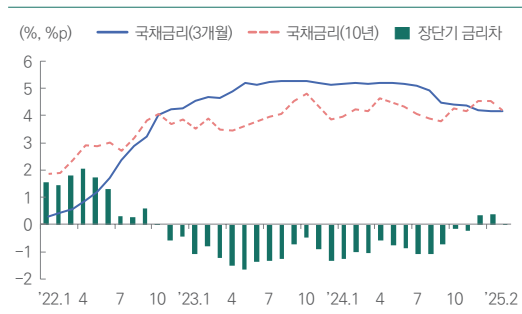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확산
- (주가) 2월말 다우산업(DJIA)지수는 43,841포인트로 전월대비 1.6% 하락하였으며, S&P500지수는 5,955포인트로 전월대비 1.4% 하락
 - DJIA지수(포인트): ('24.12월) 42,544 → ('25.1월) 44,545 → (2월) 43,841
 - S&P500지수(포인트): ('24.12월) 5,882 → ('25.1월) 6,041 → (2월) 5,955
- (금리) 2월 미 국채(10년물) 금리는 4.5%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기준금리)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지난 2024년 9월, 11월에 각각 25bp씩 인하한 이후 동결
 - 국채 10년물(%): ('24.12월) 4.4 → ('25.1월) 4.6 → (2월) 4.5
 - 장단기 금리차(%p): ('24.12월) 0.35 → ('25.1월) 0.38 → (2월) 0.04
- (환율) 2월 달러인덱스는 107.3으로 전월대비 1.3% 하락
 - 달러인덱스(인덱스): ('24.12월) 107.2 → ('25.1월) 108.7 → (2월) 107.3

| 그림 9 | 주가지수(DJIA, S&P500)



자료: S&P Global

| 그림 10 | 장단기 금리



주: 월말 기준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BOX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현황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 요소로 작용

- (목적)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따라 관세정책 추진
 - 미국의 무역 불균형⁹⁾을 조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 도모
 - * 중국에 대한 무역 혜택 철회(최혜국 대우), 필수품 수입 축소, 부동산 및 산업 판매 금지 등
 - 미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공급망 회복과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Super power)으로 재건
 - *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관련 의무화 규제 취소, 중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등
 - * 연방정부와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 기업 간 거래를 규제하고,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에너지 산업 육성 등
- (법적 근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로 활용
 - 국제경제비상권한법(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s)은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동안 행정부에 미국 내 수입, 수출, 금융 조치에 대한 조사, 무효화, 금지 등의 권한 부여
 -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무역 관행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 협정 혜택 중단, 철회 등 무역 조치 대응할 수 있음
 -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미국 상무부에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 요소인지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은 관세나 할당량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

■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확대되어 국가 간 교역 감소와 글로벌 경제성장을 하락 등의 가능성 존재

- 각국의 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과 교역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2017년 1월 ~2021년 1월) 전 세계 교역 감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브렉시트 등에 따른 2019년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에만 발생
- 오히려 미국은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상대국에게 더 많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요구 할 가능성 존재
 -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교역 상대국에게 미국산 제품(기계, 농산물, 천연가스 등)에 대한 수입 확대 요구를 강화함.

[BOX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현황⁸⁾

■ (현황)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 관세 부과에 대해 선 공표(Threatened) 후 부과(Effective), 유예(Delay), 취소(Cancelled) 등의 방식을 통해 협상을 진행

- (공표 현황) 덴마크(1/9), 콜롬비아(1/26), 중국·캐나다·멕시코(2/1), EU(2/3), 중국(2/5), 일본(2/7), 철강·알루미늄(2/11), 상호관세(2/13), 의약품·반도체·자동차(2/18), 디지털서비스(2/21), 구리(2/25), EU(2/27), 목재(3/1), 러시아(3/7), 캐나다(3/11) 등
- (부과 현황) 중국산 수입품 10% 관세(2/4), 중국산 수입품 추가 10% 관세(3/3), 멕시코·캐나다 25% 관세(3/4), 철강·알루미늄 25% 관세(3/12) 등
- (유예 현황) 캐나다·멕시코 1달 유예(2/4)
- (취소 현황) 콜롬비아(1/26),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3/6), 캐나다산 철강 50% 관세(3/12)

* 부과, 유예, 취소는 미국과 상대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가변적임

■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지원 대책 및 수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선 공표 이후 상대 국가의 대응에 따라 부과, 유예, 취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각국의 대응 방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품목 및 관세율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협상 역량을 구축할 필요
- 수출 기업의 피해 지원 대책 및 수출 개선 방안 마련
 -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편승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역량 강화

8)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현황은 Atlantic Council(<https://www.atlanticcouncil.org/>)과 Financial Times(<https://www.ft.com/>)의 Trump Tariffs tracker를 참고함(2025.3.17. 기준).

9) 2024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9,184억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

02 유로지역¹⁰⁾

유로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정체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2% 성장(전년동기대비 1.2%)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전기대비, 0.4%) 및 건설업(0.2%)은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나, 제조업(0.0%)이 전분기 대비 하락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0.4%), 정부지출(0.4%), 투자(0.6%)가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수출(-0.1%)의 감소폭이 축소
- (국가별) 스페인이 서비스업 호조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 반면, 독일 및 프랑스는 제조업 업황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표 2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전년동기대비]	0.5	0.8	0.3 [0.5]	0.2 [0.5]	0.4 [1.0]	0.2 [1.2]
농림어업	0.5	-0.6	0.9	-1.6	-0.5	0.4
제조업	-1.5	-1.7	-0.5	-0.2	0.3	0.0
건설업	1.6	-1.8	0.1	-1.0	-0.6	0.2
서비스업	1.3	1.5	0.6	0.4	0.4	0.3
민간소비	0.6	1.0	0.5	0.0	0.6	0.4
정부지출	1.4	2.8	0.3	1.1	0.9	0.4
총고정자본형성	2.0	-2.0	-2.0	-2.5	1.8	0.6
수출	-0.6	1.0	1.1	1.5	-1.4	-0.1
수입	-1.3	0.2	-0.2	1.0	0.5	-0.1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자료: Eurostat

10) 유로지역(EMU) 회원국은 2013년까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슬로베니아(2007년 1월 가입), 키프러스, 몰타(이상 2008년 1월 가입), 슬로바키아(2009년 1월 가입), 에스토니아(2011년 1월 가입)로 17개국이며 2014년 라트비아, 2015년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19개국이 되었음. 2023년 1월부터는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총 20개국으로 되었음.

표 3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유로지역	0.5	0.8	0.3	0.2	0.4	0.2
독일	-0.3	-0.2	0.2	-0.3	0.1	-0.2
프랑스	0.9	1.1	0.1	0.3	0.4	-0.1
이탈리아	0.7	-	0.3	0.1	0.0	0.1
스페인	2.7	3.2	1.0	0.8	0.8	0.8
영국	0.4	0.9	0.8	0.4	0.0	0.1

자료: Eurostat, 영국 통계청(ONS)

■ (생산) '24.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로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

- 제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로 감소하는 등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1.1 → (11월) -1.7 → (12월) -2.5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1.2 → (11월) -2.0 → (12월) -2.6

■ (소비) '24.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2%로 전월대비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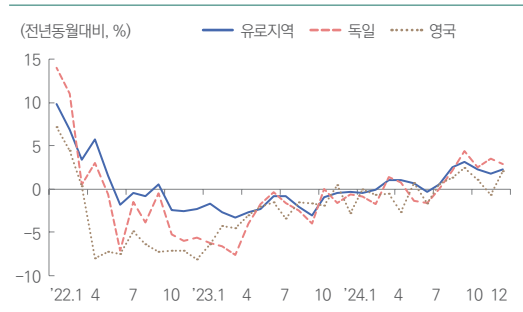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2.2 → (11월) 1.7 → (12월) 2.2
- 독일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2.5 → (11월) 3.4 → (12월) 2.8
- 영국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1.0 → (11월) -0.7 → (12월) 2.1

그림 11 | 산업생산



자료: Eurostat

그림 12 |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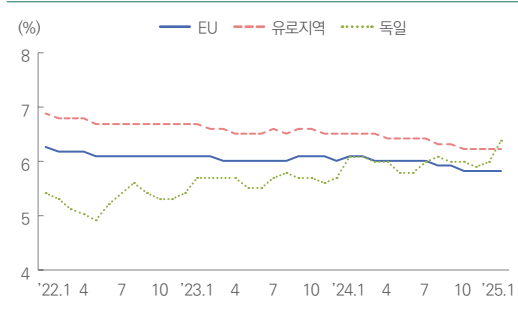


자료: OECD

■ (노동시장) '25.1월 「실업률」은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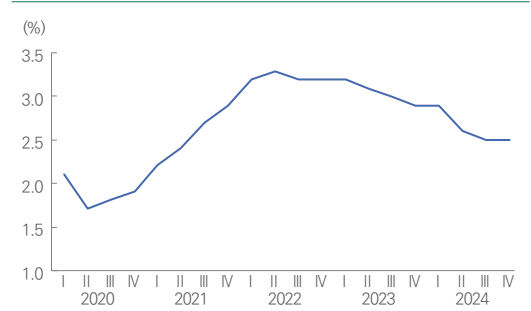
- 유로지역 실업률(%): ('24.11월) 6.2 → (12월) 6.2 → ('25.1월) 6.2
 - 국가별(%): (독일) 6.4 (프랑스) 7.3 (이탈리아) 6.3 (스페인) 10.4
- 4분기 유로지역의 구인율(job vacancy rate)은 2.5%

| 그림 13 | 주요국의 실업률



주: 계절조정
 자료: Eurostat

| 그림 14 | 구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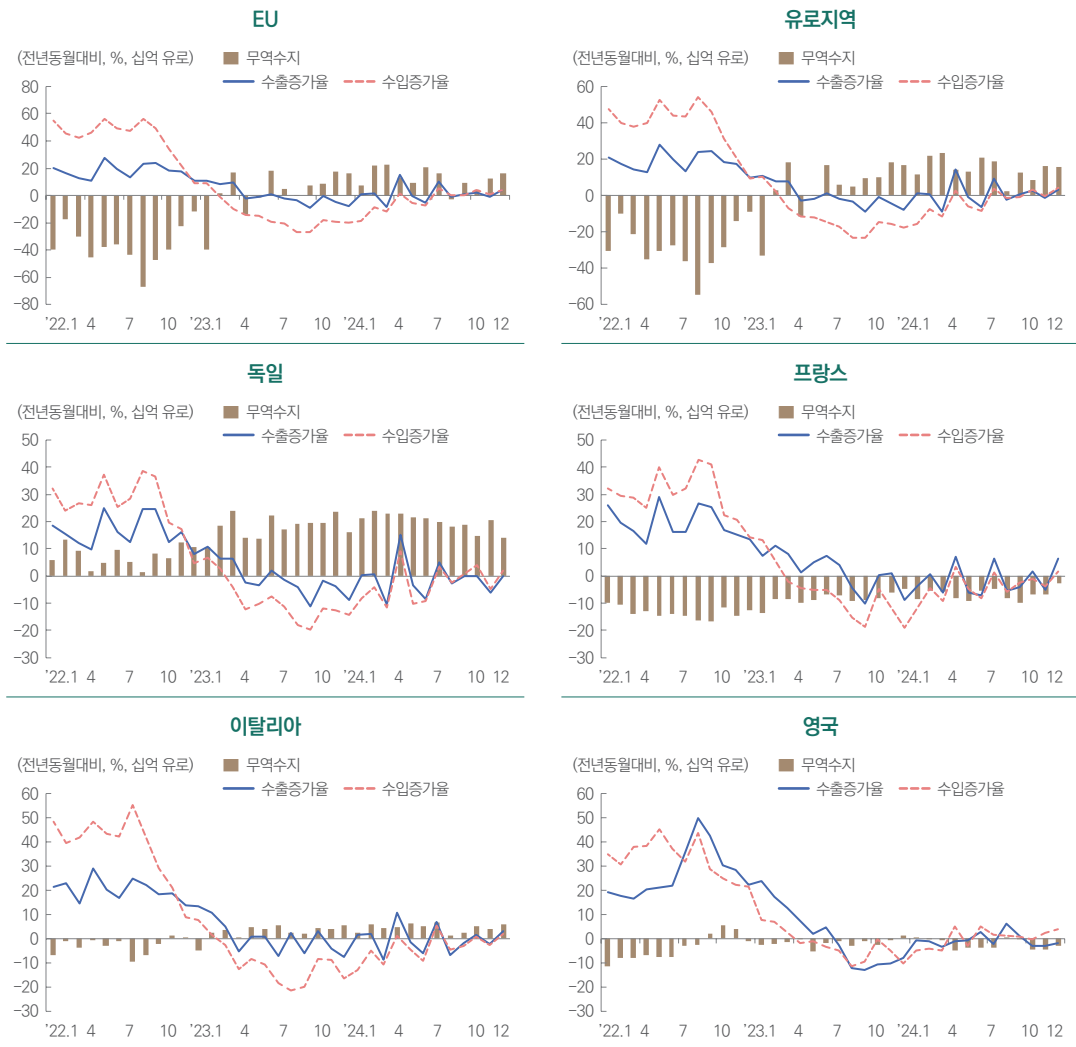


주: 전산업(농림어업 제외)
 자료: Eurostat

■ (교역) '24.12월 「수출」은 3.1% 증가, 「수입」은 3.8% 증가, 「무역수지」는 155억 유로 흑자 기록

- 유로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2.4 → (11월) -1.4 → (12월) 3.1
 - 독일 수출은 0.2% 감소, 수입은 1.9% 증가, 무역수지는 140억 유로 흑자 기록
 - 프랑스 수출은 6.2% 증가, 수입은 1.7% 증가, 무역수지는 26억 유로 적자 기록
 - 이탈리아 수출은 2.9% 증가, 수입은 1.7% 증가, 무역수지는 60억 유로 흑자 기록
 - 영국 수출은 1.9% 감소, 수입은 3.7% 증가, 무역수지는 28억 유로 적자 기록

그림 15 | 주요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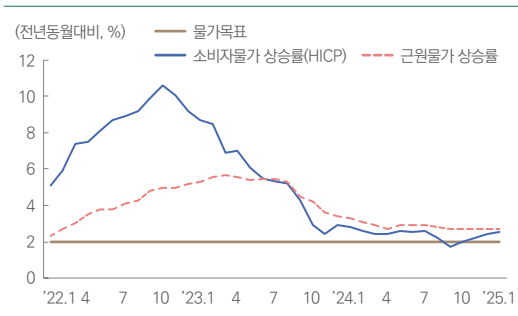
주: 유로지역 수출입은 역내교역 제외
 자료: Eurostat, 각국 통계청

■ (물가) '25.1월 「소비자물가(HICP)¹¹⁾」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5%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4.11월) 2.2 → (12월) 2.4 → ('25.1월) 2.5
 - 이는 주로 에너지('24.12월 0.1% → '25.1월 1.9%) 가격 상승에 기인
 - 부문별 기여도(%): (식음료) 0.4 (산업재) 0.1 (에너지) 0.2 (서비스) 1.8
- 근원물가(전년동기대비, %): ('24.11월) 2.7 → (12월) 2.7 → ('25.1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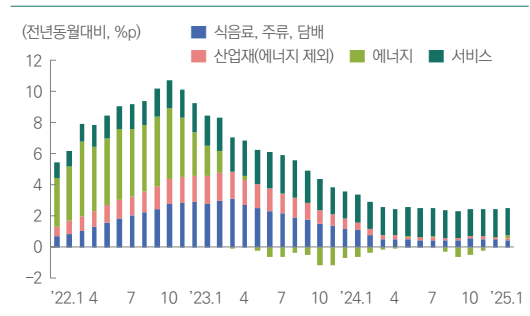
11) 소비자물가통합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

| 그림 16 | 물가상승률 및 목표



주: 1)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
2) 소비자물가종합지수(HICP)
3) 근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한 HICP)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Eurostat

| 그림 17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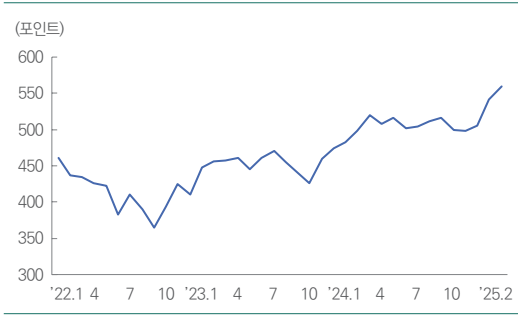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금융) '25.2월 「주가지수」와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금리」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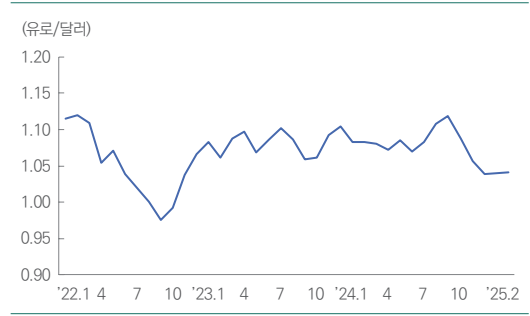
- (주가) 2월 유로지역 주가지수(유로스탁스)는 560포인트로 전월대비 3.4%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505 → ('25.1월) 541 → (2월) 560
- (금리) 2월 독일 국채(10년물) 금리는 2.4%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기준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지난 '25.2월에 25bp 인하
- 국채 10년물(%): ('24.12월) 2.4 → ('25.1월) 2.5 → (2월) 2.4
- (환율) 2월 달러대비 유로화 환율은 1.041로 전월대비 0.2% 상승
- 유로/달러: ('24.12월) 1.039 → ('25.1월) 1.039 → (2월) 1.041

| 그림 18 | 주가지수(EUROSTOXX)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19 | 환율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03 일본

일본경제는 2024년 4분기에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5.1월 들어 회복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7%(연율 2.8%) 성장

- (부문별) 민간소비(0.1%), 정부투자(-0.3%) 등이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가 개선
- 2024년 실질GDP는 전년대비 0.1% 증가하여, 2023년(1.5%) 수준을 크게 하회

표 4 |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1.5	0.1	-0.5	0.7	0.4	0.7
국내수요	0.5	0.2	-0.2	1.0	0.5	-0.1
민간수요	0.6	0.0	-0.2	0.8	0.7	-0.1
민간소비지출	0.8	-0.1	-0.5	0.7	0.7	0.1
주택건설	1.5	-2.3	-2.8	1.4	0.5	0.1
설비투자	1.5	1.2	-0.4	1.1	-0.1	0.5
공적수요	0.1	0.5	-0.3	1.8	-0.1	0.1
정부소비지출	-0.3	0.9	0.2	0.9	0.1	0.3
공적고정자본형성	1.5	-0.9	-2.0	5.7	-1.1	-0.3
수출	3.0	1.0	-4.1	1.7	1.5	1.1
수입	-1.5	1.3	-2.8	3.0	2.0	-2.1

자료: 일본 내각부(CAO)

■ (생산) '25.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전월대비 -1.1%)

- 광업은 1.7%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자동차(11.7%) 등을 중심으로 2.7% 증가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1.9 → (12월) -3.2 → ('25.1월) 2.6

■ (소비) '25.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전월대비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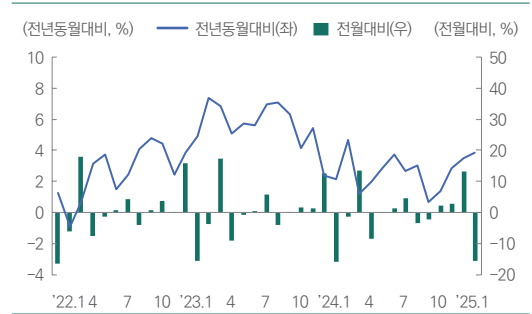
- (업종별) 주유소 등 연료소매(8.7%), 무점포소매(8.0%), 자동차(5.9%) 등을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확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2.8 → (12월) 3.5 → ('25.1월) 3.8

| 그림 20 | 광공업생산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 그림 21 | 소매판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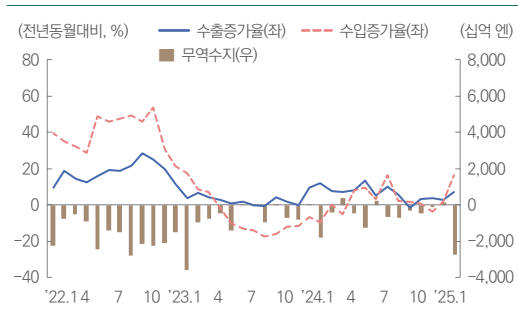
■ (교역) '25.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수입」은 16.5% 증가, 「무역수지」는 2조 7,366억 엔 적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3.8 → (12월) 2.8 → ('25.1월) 7.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1월) -3.8 → (12월) 1.7 → ('25.1월) 16.5
- 무역수지(십억 엔): ('24.11월) -114.5 → (12월) 132.5 → ('25.1월) -2,736.6

■ (노동시장) '25.1월 「실업률」은 2.5%, 「고용률」은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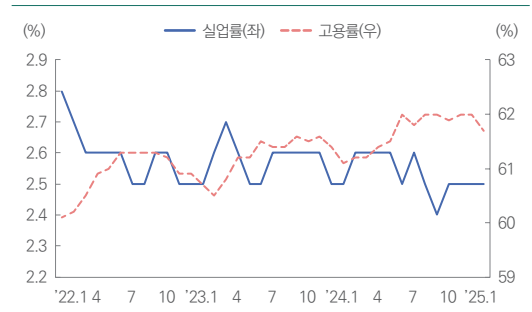
- 실업률(%): ('24.11월) 2.5 → (12월) 2.5 → ('25.1월) 2.5
- 고용률(%): ('24.11월) 62.0 → (12월) 62.0 → ('25.1월) 61.7

| 그림 22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일본 재무성(MOF)

| 그림 23 | 실업률¹⁾ 및 고용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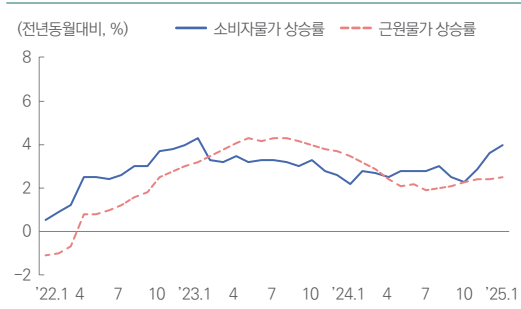


주: 1) 계절조정
2)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자료: 일본 통계국(SBJ)

■ (물가) '25.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0%로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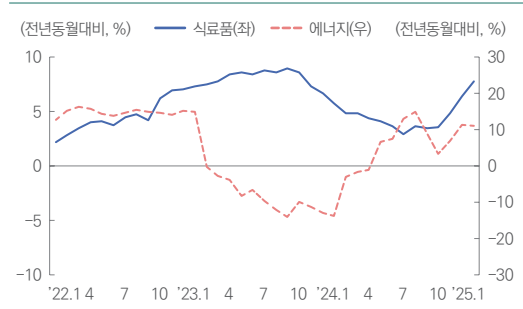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가스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에너지 가격이 큰 폭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9 → (12월) 3.6 → ('25.1월) 4.0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4 → (12월) 2.4 → ('25.1월) 2.5

| 그림 24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¹⁾ 상승률



주: 1)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지수
자료: 일본 통계국(SBJ)

| 그림 25 |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자료: 일본 통계국(SBJ)

■ (금융) '25.2월 「주가지수」와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금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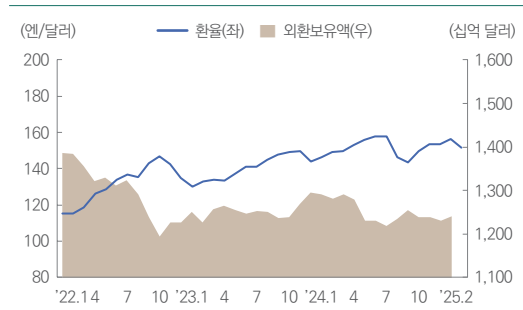
- (주가) 2월 니케이 지수는 37,156포인트로 전월대비 6.1%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39,895 → ('25.1월) 39,572 → (2월) 37,156
- (금리) 2월 국채(10년물) 금리는 1.4%로 전월대비 0.2%p 상승
 - 국채 10년물(%): ('24.12월) 1.1 → ('25.1월) 1.2 → (2월) 1.4
- (환율) 2월 엔화 환율은 150.44엔/달러로 전월대비 2.7% 하락
 - 엔/달러: ('24.12월) 157.89 → ('25.1월) 154.66 → (2월) 150.44

| 그림 26 | 주가지수(NIKKEI)



주: 월말 기준
자료: 도쿄증권거래소(TSE)

| 그림 27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주: 월말 기준
자료: 일본은행(BOJ), IMF



주요 신흥경제 동향

- **(중국) 생산 및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 증가세가 둔화**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4.2분기) 4.7 → (3분기) 4.6 → (4분기) 5.4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5.3 → (11월) 5.4 → (12월) 6.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12.7 → (11월) 6.7 → (12월) 10.7
 - 실업률(%): ('24.11월) 5.0 → (12월) 5.1 → ('25.1월) 5.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0.2 → (12월) 0.1 → ('25.1월) 0.5
- **(브라질)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수출은 부진**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4.1분기) 2.6 → (2분기) 3.3 → (3분기) 4.0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5.9 → (11월) 1.7 → (12월) 1.6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1.3 → (11월) -0.1 → (12월) -13.6
 - 실업률(%): ('24.10월) 6.2 → (11월) 6.1 → (12월) 6.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0월) 4.8 → (11월) 4.9 → (12월) 4.8
-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4.1분기) 5.4 → (2분기) 4.1 → (3분기) 3.1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5.1 → (11월) 3.5 → (12월) 8.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6.0 → (11월) -5.5 → (12월) -19.2
 - 실업률(%): ('24.10월) 2.3 → (11월) 2.3 → (12월) 2.5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0월) 8.3 → (11월) 8.4 → (12월) 8.5
- **(인도) 2024년 4분기에는 소비 및 수출에 힘입어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이 감소세**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4.2분기) 6.5 → (3분기) 5.6 → (4분기) 6.2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3.7 → (10월) 5.0 → (11월) 3.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5.1 → (12월) -1.0 → ('25.1월) -2.4
 - 실업률(%): ('24.2분기) 6.6 → (3분기) 6.4 → (4분기) 6.4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5.5 → (12월) 5.2 → ('25.1월) 4.3
- **(베트남) 수출 호조 및 FDI 유입으로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4.2분기) 7.3 → (3분기) 7.4 → (4분기) 7.6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8.0 → (12월) 8.8 → ('25.1월) 0.6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8.2 → (12월) 12.8 → ('25.1월) -4.0
 - 실업률(%): ('24.2분기) 2.29 → (3분기) 2.23 → (4분기) 2.2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8 → (12월) 2.9 → ('25.1월) 3.6

01 중국

중국경제는 생산 및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 증가세가 둔화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5.4% 성장(전기대비 1.6%)
 - (산업별) 4분기 모든 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연간으로는 2차산업(전년대비 0.6%p)의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1차 및 3차산업(-0.6%p, -0.8%p)의 성장세는 둔화
 - (지출부문별) 수출이 4분기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도 전기대비 개선
 - 연간으로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승 전환(-0.6%p → 1.5%p)하였으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가 전년대비 절반수준(4.6%p → 2.2%p)으로 하락

표 1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²⁾ 국내총생산

(단위: %, %p)

	2023년	202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5.2	5.0	5.3	4.7	4.6	5.4
1차산업	4.1	3.5	3.3	3.6	3.2	3.7
2차산업	4.7	5.3	6.0	5.6	4.6	5.2
3차산업	5.8	5.0	5.0	4.2	4.8	5.8
최종소비지출	4.6	2.2	3.9	2.3	1.4	1.6
총자본형성	1.4	1.3	0.6	1.9	1.2	1.3
순수출	-0.6	1.5	0.8	0.5	2.1	2.5

주: 1) 전년동기대비(%)

2) GDP 기여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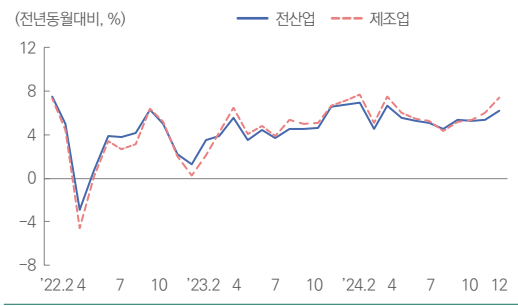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생산) '24.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2%로 전월대비 0.8%p 증가
 - 광업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자동차(17.7%) 등을 중심으로 7.4%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5.3 → (11월) 5.4 → (12월) 6.2
- (경기) '25.2월 「구매관리자지수(PMI)¹²⁾」는 51.1로 전월대비 1.0p 상승
 - (제조업) 2월 제조업 PMI는 50.2로 전월대비 1.1p 상승

12)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50을 상회하면 경기확장, 50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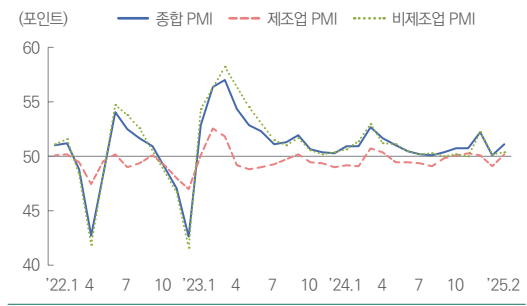
- (규모별) 중기업(1월 49.5 → 2월 49.2) 및 소기업(46.5 → 46.3)은 하락하였으나 대기업(49.9 → 52.5)은 큰 폭 상승
- (업종별) 첨단기술 제조업(1월 49.3 → 2월 50.9)은 회복하였으며, 장비제조업(50.2 → 50.8)은 개선
- (비제조업) 2월 비제조업 PMI는 50.4로 전월대비 0.2p 상승
 - 서비스업(1월 50.3 → 2월 50.0)은 도소매, 숙박, 외식 등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건설업(49.3 → 52.7)은 상승

| 그림 1 | 산업생산



주: 춘절로 인해 1~2월은 누적치를 발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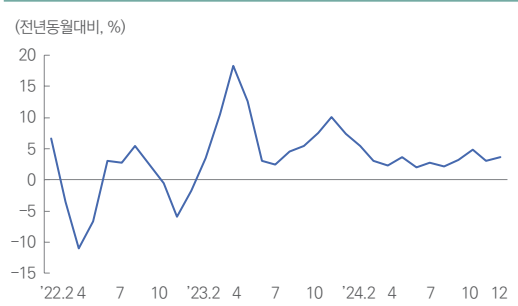
| 그림 2 | 구매관리자지수(PMI)



주: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위축을 의미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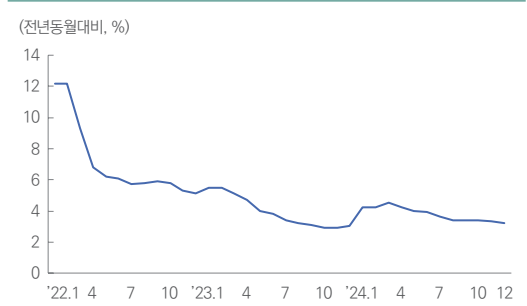
- (소비) '24.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7%로 전월대비 0.7%p 증가
 - 상품판매 증가세(11월 2.8% → 12월 3.9%)는 확대되었으나 외식업은 증가세(4.0% → 2.7%)가 둔화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4.8 → (11월) 3.0 → (12월) 3.7
- (투자) '24.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2%(누계)로 전월대비 0.1%p 축소
 - SOC투자 증가세는 소폭 확대(11월 4.2% → 12월 4.4%)된 반면 제조업투자 증가세는 소폭 축소(9.3% → 9.2%)되었으며,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은 지속(-10.6% → -10.8%)
 -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전년동월대비, %): ('24.10월) 3.4 → (11월) 3.3 → (12월) 3.2

| 그림 3 | 소매판매



주: 춘절로 인해 1~2월은 누적치를 발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그림 4 | 고정자산투자



주: 누계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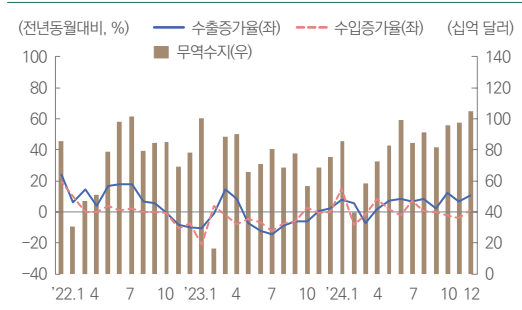
■ **(교역) '24.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 「수입」은 1.0% 증가, 「무역수지」는 1,048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12.7 → (11월) 6.7 → (12월) 10.7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유무선통신기기) -6.4 (반도체) 5.4 (자동차로처리기기) 9.1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15.6 (홍콩) -7.6 (베트남) 13.8 (일본) 4.0 (한국) -4.2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0월) -2.3 → (11월) -3.9 → (12월) 1.0
- 무역수지(십억 달러): ('24.10월) 95.7 → (11월) 97.4 → (12월) 104.8

■ **(노동시장) '25.1월 「실업률」은 5.2%로 전월대비 0.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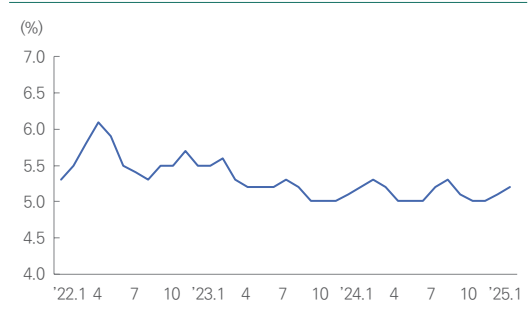
- 실업률(%): ('24.11월) 5.0 → (12월) 5.1 → ('25.1월) 5.2
- '24.1~11월 평균 신규취업자 수는 108.9만명(전년동기대비 +1.5%)으로 전년동기(107.3만명)에 비해 1.6만명 증가

| 그림 5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중국 해관총서(GAC)

| 그림 6 | 실업률



주: 전국 조사실업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물가) '25.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5%로 전월(0.1%)대비 소폭 상승**

- (품목별) 서비스 가격(12월 0.5% → 1월 1.1%)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가격(-0.5% → 0.4%)은 상승 전환¹³⁾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0.2 → (12월) 0.1 → ('25.1월) 0.5
- 근원물가¹⁴⁾(전년동월대비, %): ('24.11월) 0.3 → (12월) 0.4 → ('25.1월) 0.6

■ **(주택가격) '25.1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4%로 전월(-5.7%)대비 하락폭이 소폭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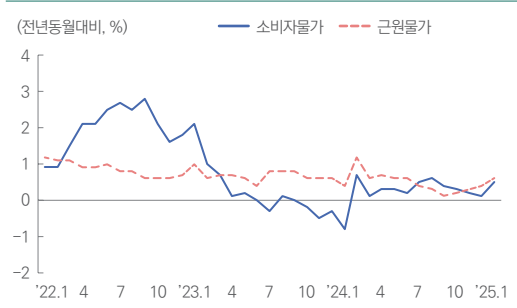
-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하락폭이 소폭 완화되었음

13) 중국 국가통계국(2/9일)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여행·문화·오락·항공권·영화 등 서비스 부문의 수요와 가격이 오른데다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데 기인

14) 식품, 에너지 제외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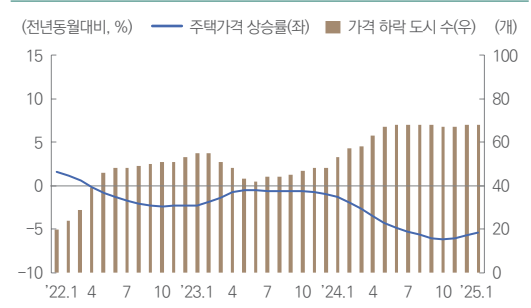
- 70개 도시 중 상하이(5.6%), 타이위안(1.0%)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1월) -6.1 → (12월) -5.7 → ('25.1월) -5.4

| 그림 7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그림 8 |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¹⁾ 및 가격 하락 도시 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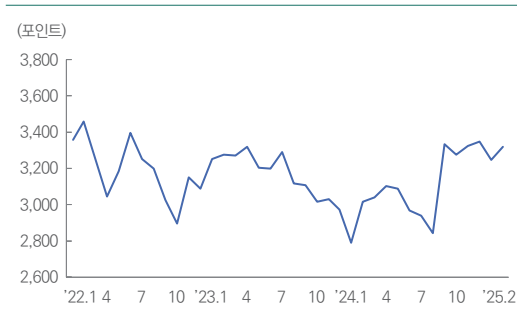


주: 1) 주요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의 단순 평균
2) 주택가격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도시의 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금융) '25.2월 「주가지수」와 「금리」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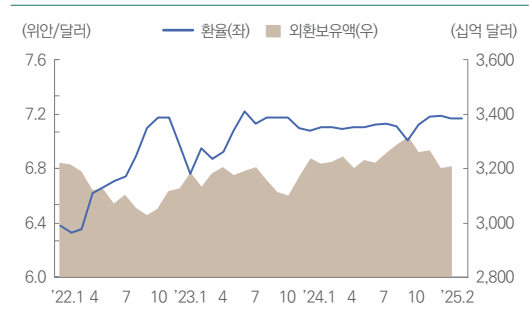
- (주가) 2월 상해종합지수는 3,321포인트로 전월대비 2.2%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3,352 → ('25.1월) 3,251 → (2월) 3,321
- (금리) 2월 국채(10년물) 금리는 1.8%로 전월대비 0.2%p 상승
 - (기준금리) 2/20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1%, 5년물 3.6%로 4개월 연속 동결¹⁵⁾
 - 국채 10년물(%): ('24.12월) 1.7 → ('25.1월) 1.6 → (2월) 1.8
- (환율) 2월 위안화 환율은 7.17 위안/달러로 전월과 동일
 - 환율(위안/달러): ('24.12월) 7.19 → ('25.1월) 7.17 → (2월) 7.17

| 그림 9 | 주가지수(상해종합)



주: 월말자료
자료: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 그림 10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주: 월별자료
자료: 중국 인민은행(PBOC)

15)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위안화 약세 현상 때문에 '경기 부양'과 '환율 안정' 사이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

02 브라질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수출이 부진

■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0% 성장(전기대비 0.9%)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3.6%), 광업(11.7%), 제조업(1.6%), 건설업(6.9%), 서비스업(7.7%) 모두 증가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5.5%), 총고정자본형성(10.8%)의 증가 폭은 확대되었으나, 수출(2.1%)의 신장세가 둔화

표 2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GDP)	3.2	4.4	3.9	2.4	2.4	2.6	3.3	4.0
농림어업	13.4	15.3	19.6	7.9	8.2	-5.0	0.5	3.6
광업	-15.6	-1.7	-24.8	-27.6	-3.8	0.8	12.1	11.7
제조업	10.1	24.9	6.6	6.6	5.7	-1.0	-1.1	1.6
건설업	11.6	11.0	13.8	9.3	12.3	14.1	14.0	6.9
서비스업	10.6	13.9	11.5	8.8	8.8	7.6	7.4	7.7
민간소비	3.2	4.0	3.1	3.3	2.6	4.7	5.1	5.5
정부지출	3.8	1.5	4.8	3.5	5.1	4.1	1.2	1.3
총고정자본형성	-3.0	1.5	-1.5	-6.8	-4.4	3.0	5.7	10.8
수출	8.9	7.1	11.5	9.6	7.3	6.1	4.3	2.1
수입	-1.2	1.7	1.1	-5.8	-0.9	10.0	14.7	17.7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브라질 중앙은행(BCB)

■ (생산) '24.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광공업은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전자·통신(22.0%), 자동차(12.8%), 전기장비(12.6%)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5.9 → (11월) 1.7 → (12월) 1.6

■ (소비) '24.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1% 증가(전월대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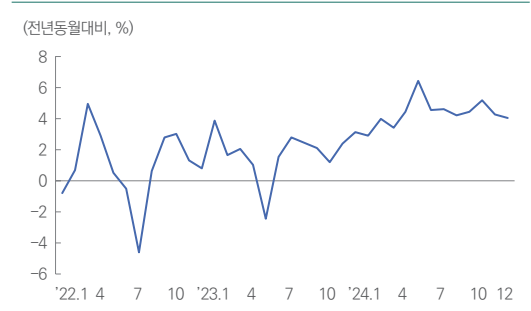
- (상품군별) 음식료(10.2%), 의약품·화장품(9.7%), 의복·신발(2.9%), 컴퓨터·통신기기(2.3%) 등은 증가하였으나, 서적(-4.7%), 가구·가전(-1.9%), 연료·윤활유(-1.3%)는 감소하였음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5.2 → (11월) 4.3 → (12월) 4.1

| 그림 11 | 산업생산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2 | 소매판매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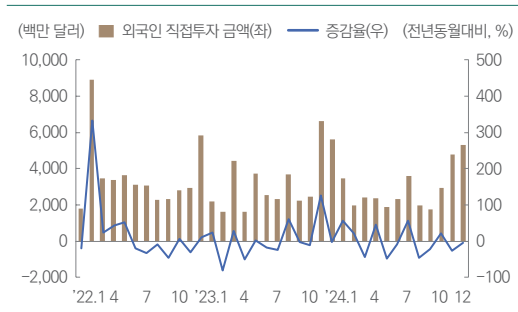
■ (투자) '24.12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동월대비 -5.1% 감소

- 외국인 직접투자(전년동월대비, %): ('24.10월) 20.3 → (11월) -27.9 → (12월) -5.1

■ (교역) '24.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 「수입」은 4.0% 증가, 「무역수지」는 46억 달러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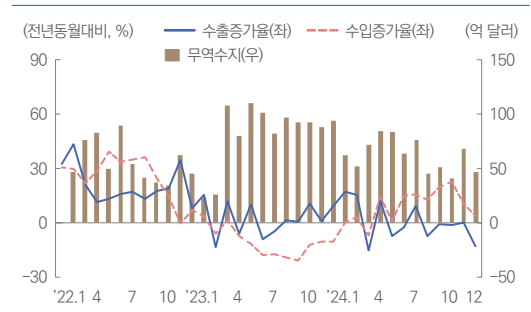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1.3 → (11월) -0.1 → (12월) -13.6
 - 주요 품목별(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원유) 5.3 (대두) -19.3 (철광석) -2.4
 - 주요 교역국(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중국) -40.3 (미국) 7.1 (아르헨티나) 55.4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0월) 23.0 → (11월) 10.5 → (12월) 4.0
- 무역수지(억 달러): ('24.10월) 41 → (11월) 67 → (12월) 46

| 그림 13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자료: CEIC

| 그림 14 | 수출입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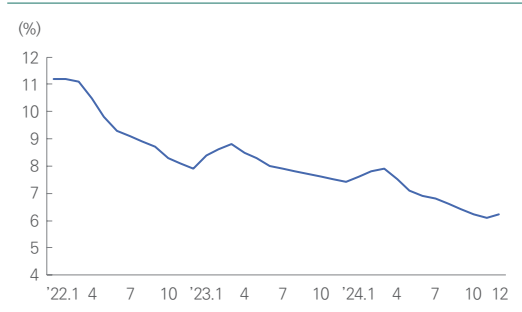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경제부(MOE)

■ (노동시장) '24.12월 「실업률」은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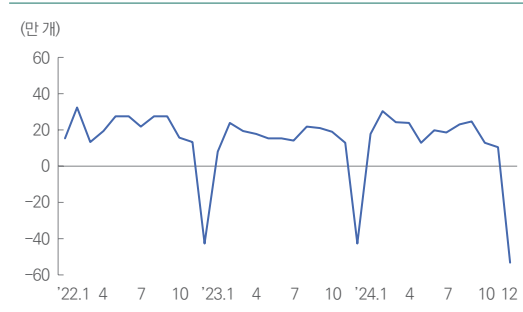
- 실업률(%): ('24.10월) 6.2 → (11월) 6.1 → (12월) 6.2
- 2024년 1~12월(누적) 신규 일자리 수는 16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 그림 15 | 실업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6 | 신규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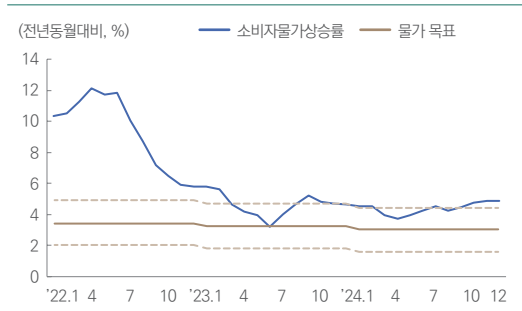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노동부(MOL)

■ (물가) '24.12월 「소비자물가(IPCA¹⁶⁾」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8%로 전월(4.9%) 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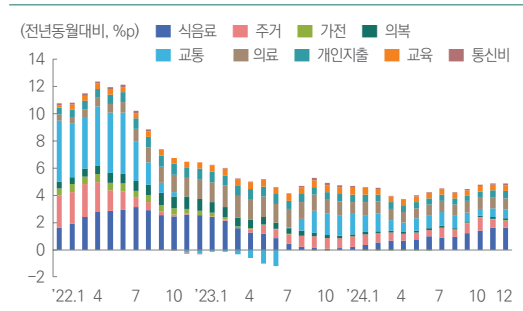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0월) 4.8 → (11월) 4.9 → (12월) 4.8
- 부문별(전년동기대비, %p): (식음료) 1.7 (주거) 0.5 (교통) 0.7 (의료) 0.8 (교육) 0.4
-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IPCA)는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목표치인 3%(허용범위 ±1.5% 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음

| 그림 17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 목표



주: 1) 전국 소비자물가지수(IPCA)
 2) 점선은 물가목표의 상단 및 하단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8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16) 전국 소비자물가지수(Í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idor Amplo, IPCA)

■ (금융) '25.2월 「주가지수」와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금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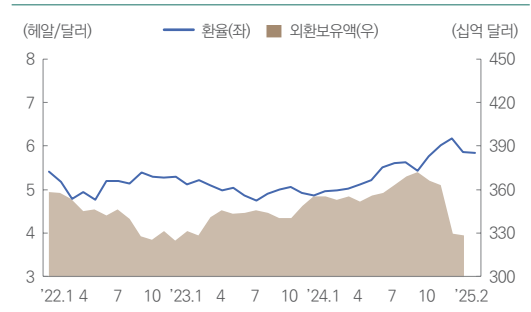
- (주가) 2월 보베스파(BOVESPA)지수는 122,799포인트로 전월대비 2.6%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120,283 → ('25.1월) 126,135 → (2월) 122,799
- (금리) 2월 브라질 국채(10년물) 금리는 15.3%로 전월대비 0.5%p 상승
 - (기준금리)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9월 이후 네 차례('24.9월 25bp, 11월 50bp, 12월 100bp, '25.1월 100bp)에 걸쳐 기준금리(Selic)를 인상
 - 국채 10년물(%): ('24.12월) 15.2 → ('25.1월) 14.8 → (2월) 15.3
- (환율) 2월 달러 대비 헤알화의 환율은 5.84헤알로 전월대비 0.6% 하락
 - 환율(헤알/달러): ('24.12월) 6.18 → ('25.1월) 5.88 → (2월) 5.84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4.11월) 3,630 → (12월) 3,297 → ('25.1월) 3,283

| 그림 19 | 주가지수(BOVESPA)



자료: 브라질 증권거래소(BOVESPA)

| 그림 20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IMF

03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5.2%)과 광업(-1.1%)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5.9%)과 서비스업(4.5%)은 증가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6.5%)와 투자(10.1%)의 증가 폭이 확대되었으며, 정부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4.5%)로 전환

표 3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GDP)	3.6	-1.6	5.1	5.7	4.9	5.4	4.1	3.1
농림어업	0.1	1.8	1.4	2.5	-4.9	0.5	0.6	-5.2
광업	-2.0	-5.1	0.0	-1.7	-1.5	1.4	-1.1	-1.1
제조업	6.9	-0.9	10.0	10.7	7.2	9.0	8.1	5.9
건설업	6.6	7.8	9.9	8.0	3.5	4.8	5.6	0.3
서비스업	4.7	0.3	5.3	6.4	6.7	5.9	5.1	4.5
민간소비	6.5	-0.7	10.0	9.7	7.3	6.7	6.1	6.5
정부지출	7.0	7.8	7.2	7.1	5.9	-0.3	-0.2	4.5
총고정자본형성	8.8	6.8	12.9	7.7	8.1	12.9	7.2	10.1
수출	-22.9	-31.8	-23.9	-23.0	-10.2	-3.3	2.8	0.4
수입	10.4	37.6	2.7	10.0	-1.5	-10.2	-8.3	2.6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생산) '24.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14.2%, 광공업은 1.4%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5.1 → (11월) 3.5 → (12월) 8.2

■ (소비) '24.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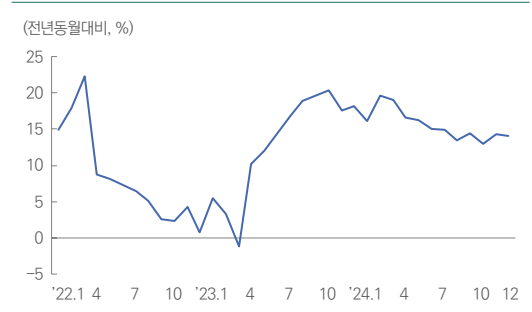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0월) 12.9 → (11월) 14.3 → (12월) 14.1

| 그림 21 | 산업생산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그림 22 | 소매판매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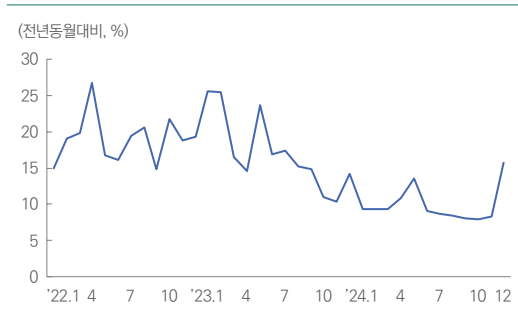
■ (건설) '24.12월 「건설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7% 상승

- 건설 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7.8 → (11월) 8.2 → (12월) 15.7

■ (교역) '24.12월 「수출」은 313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9.2%), 「수입」은 257억 달러(-7.5%)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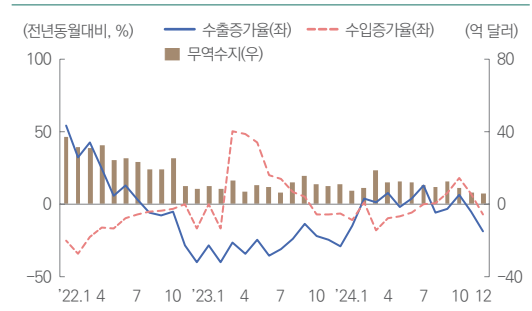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0월) 6.0 → (11월) -5.5 → (12월) -19.2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0월) 17.8 → (11월) 6.9 → (12월) -7.5
- 무역수지(억 달러): ('24.10월) 88 → (11월) 60 → (12월) 56

| 그림 23 | 건설생산



자료: CEIC

| 그림 24 | 수출입 추이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러시아 중앙은행(C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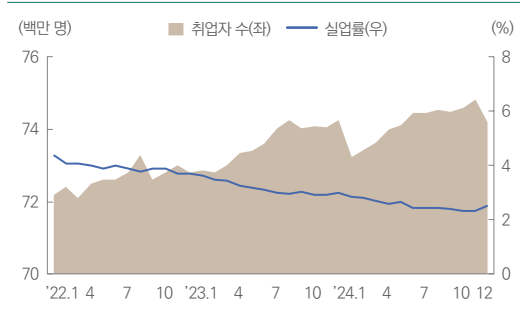
■ (노동시장) '24.12월 「실업률」은 2.5%

- 실업률(%): ('24.10월) 2.3 → (11월) 2.3 → (12월) 2.5
- '24.12월 취업자 수는 7,42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

■ (물가) '24.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5%로 전월(8.4%)대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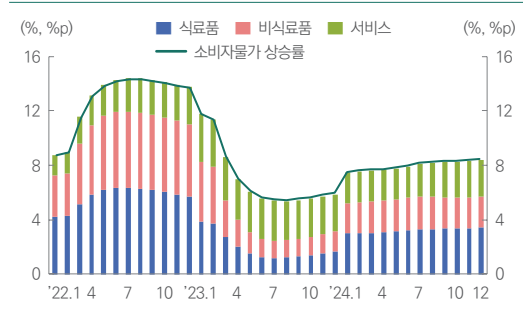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식료품) 9.2 (비식료품) 6.4 (서비스) 10.0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0월) 8.3 → (11월) 8.4 → (12월) 8.5

| 그림 25 |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그림 26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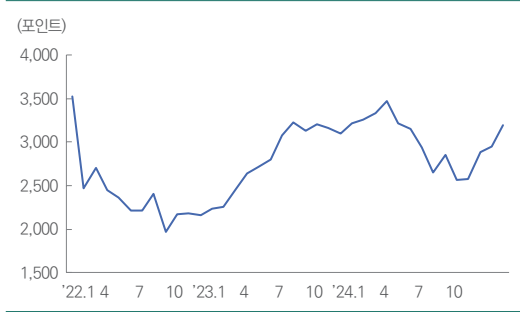
■ (경기) '24.12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50.8, 서비스업 51.2로 전월 대비 하락

- 「제조업 PMI」는 전월 51.3에서 50.8로 소폭 하락
- 「서비스업 PMI」는 전월 53.2에서 51.2로 둔화

■ (금융) '25.2월 「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금리」와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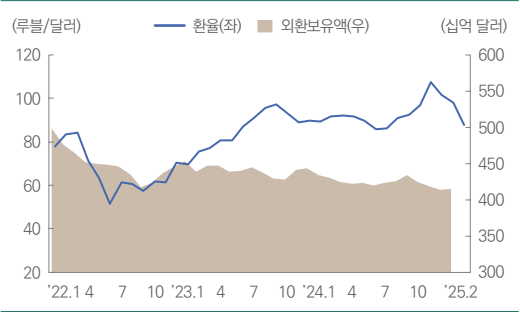
- (주가) 2월 러시아 주가지수(MOEX)는 3,200 포인트로 전월대비 8.6%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2,883 → ('25.1월) 2,948 → (2월) 3,200
- (금리) 2월 러시아 국채(10년물) 금리는 15.5%로 전월대비 1.0%p 하락
 - (기준금리)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4.7월 이후 세 차례('24.7월 2%p, 9월 1%p, 10월 2%p)에 걸쳐 기준금리를 21.0%까지 인상하였음
 - 국채 10년물(%): ('24.12월) 15.2 → ('25.1월) 16.5 → (2월) 15.5
- (환율) 2월 미 달러 대비 루블화의 환율은 87.7루블로 전월대비 10.5% 하락
 - 환율(루블/달러): ('24.12월) 101.7 → ('25.1월) 98.0 → (2월) 87.7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4.11월) 414 → (12월) 413 → ('25.1월) 414

| 그림 27 | 추가지수(MOEX)



자료: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 그림 28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CBR)

[BOX 2] 미국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

■ (미국)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유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변화 가능성

- (기존 제재) 무역, 투자, 금융 분야 등에서 경제적 제재
 - 전략 물자의 러시아 수출 제한 및 최혜국 관세 혜택 철회와 추가 관세 부과
 - 러시아 전략 산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금융 거래 금지, 주요 은행의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 러시아 주요 인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제한
- (동향) 경제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변화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의 1년 연장을 발표('25.2.27.)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시까지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가능성 언급
 - 향후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추진 등에 따라 변화 가능성

04 인도

인도경제는 2024년 4분기에 소비, 수출에 힘입어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이 감소세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2% 성장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5.6%), 제조업(3.5%), 서비스업(7.4%) 증감률은 전분기를 상회하였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6.9%), 정부지출(8.3%), 수출(10.4%)의 증가폭은 전기대비 확대되었으나, 투자(5.7%)는 소폭 축소

표 4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²⁾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23년	2023/24년	2024년 ⁴⁾			
	연간 ³⁾	연간 ³⁾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7.6	9.2	8.4	6.5	5.6	6.2
농림어업	6.3	2.7	0.9	1.7	4.1	5.6
광업	3.4	3.2	0.8	6.8	-0.3	1.4
제조업	-1.7	12.3	11.3	7.5	2.1	3.5
건설업	9.1	10.4	8.7	10.1	8.7	7.0
서비스업	10.3	9.0	7.8	6.8	7.2	7.4
민간소비	7.5	5.6	6.2	7.7	5.9	6.9
정부지출	4.3	8.1	6.6	-0.5	3.8	8.3
총고정자본형성	8.4	8.8	6.0	6.7	5.8	5.7
수출	10.3	2.2	7.7	8.1	2.5	10.4
수입	8.9	13.8	11.4	-0.7	-2.5	-1.1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11/12년 기준가격

3) 연간자료는 회계 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2023/24년은 2023년 4월~2024년 3월을 나타냄

4) 분기별 자료는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생산) '24.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로 전월(5.0%)대비 1.8%p 감소

- 광공업은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1차 금속(6.7%), 전기장비(40.1%), 코크스·석유정제품(3.9%) 등을 중심으로 3.0%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0월) 3.7 → (11월) 5.0 → (12월) 3.2

■ (소비) '25.1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은 40만대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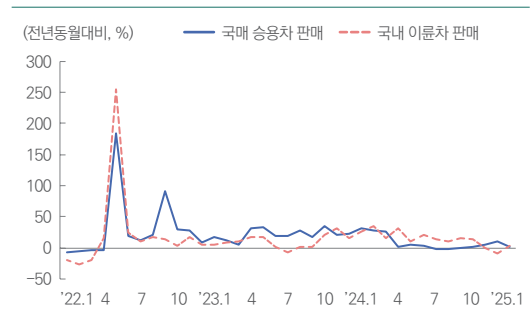
- 1월 국내 이륜차 판매량은 153만대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국내 승용차 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4.0 → (12월) 10.0 ('25.1월) 1.6
 - 국내 이륜차 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1.1 → (12월) -8.8 ('25.1월) 2.1
- (소비심리) 1월 「소비자신뢰지수」¹⁸⁾는 93.7로 전기대비 0.3p 하락
 - 소비자신뢰지수(기준=100): ('24.9월) 94.7 → (11월) 94.0 → ('25.1월) 93.7

| 그림 29 | 산업생산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그림 30 | 차량 판매



자료: 인도 자동차공업협회(SIAM)

■ (투자) '24.12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누계)은 8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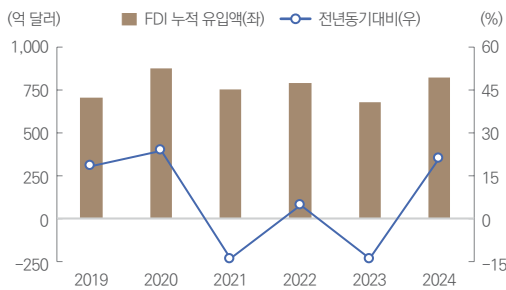
- FDI 증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¹⁹⁾, 상품·서비스세(GST)²⁰⁾ 도입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데 기인(인도 상공부)

17) 인도는 소매판매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의 민간 소비를 평가할 때 자동차 판매량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인도 자동차 판매시장에서는 승용차(passenger vehicles)보다 이륜차(two wheelers) 판매 비중이 높음.
 18) 현재상황지수(Current Situation Index)로 100을 상회(하회)하면 경제상황이 개선(악화)된 것으로 평가
 19) 인도의 제조업 부흥 및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
 20)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인도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외에서 생산되어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함. GST가 도입되면서 인도의 주별로 상이하던 간접세가 단일 조세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교역) '25.1월 「수출」은 364억 달러(전년동월대비 -2.4%), 「수입」은 594억 달러(10.3%)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230억 달러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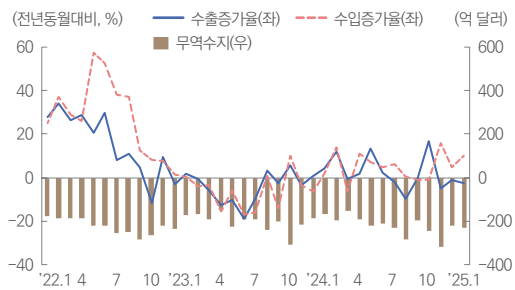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5.1 → (12월) -1.0 → ('25.1월) -2.4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기계) 7.4 (전자제품) 79.0 (석유) -58.7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39.0 (UAE) -8.4 (영국) 14.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1월) 16.0 → (12월) 4.9 → ('25.1월) 10.3
- 무역수지(억 달러): ('24.11월) -318 → (12월) -219 → ('25.1월) -230

| 그림 31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1~12월 누계)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 그림 32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인도 상공부(M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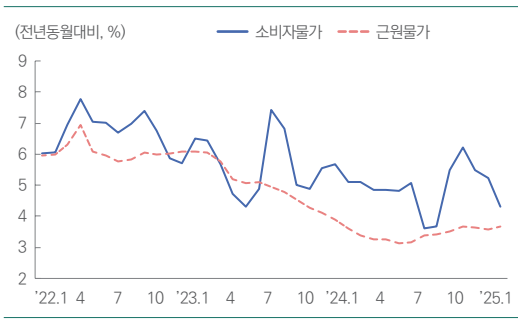
■ 2024년 4분기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6.4%

- 실업률(%): ('24.2분기) 6.6 → (3분기) 6.4 → (4분기) 6.4
- (경제활동참가율) '24년 4분기 도시지역 내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50.4%로 전년동기대비 (49.9%) 0.5%p 증가

■ '25.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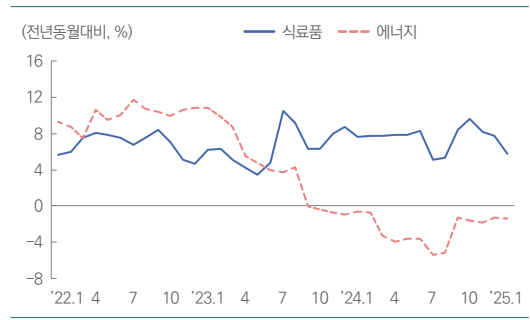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은 5.7% 상승했으나, 에너지 가격은 1.4% 하락
 - 이시기후로 식료품 가격(특히 채소류)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은 정부 보조금 효과에 따른 LPG 가격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하락세 지속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24.5월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4%를 하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5.5 → (12월) 5.2 → ('25.1월) 4.3

| 그림 33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그림 34 | 식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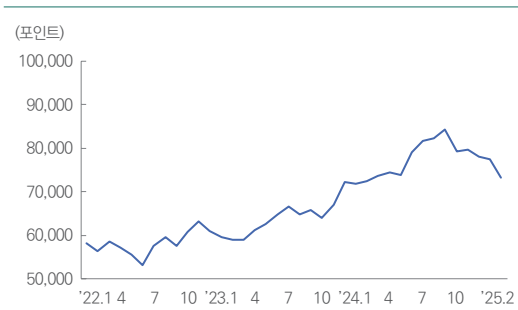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금융) '25.2월 「주가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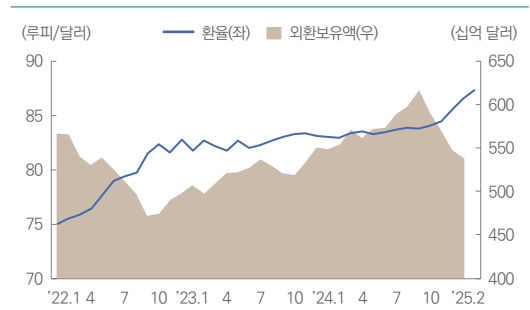
- (주가) 2월 인도 주가지수(SENSEX)는 73,198포인트로 전월대비 5.6%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78,139 → ('25.1월) 77,501 → (2월) 73,198
- (금리) 2월 인도 국채(10년물) 금리는 6.7%로 전월과 동일
 - (기준금리) 2/26일 인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5bp 인하
 - 국채 10년물(%): ('24.12월) 6.8 → ('25.1월) 6.7 → (2월) 6.7
- (환율) 2월 미 달러 대비 루피화의 환율은 87.4루피로 전월대비 0.9% 상승
 - 환율(루피/달러): ('24.12월) 85.6 → ('25.1월) 86.6 → (2월) 87.4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4.11월) 570 → (12월) 547 → ('25.1월) 538

| 그림 35 | 주가지수(SENSEX)



자료: 인도 봄베이 증권거래소(BSE)

| 그림 36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인도 중앙은행(RBI)

05 베트남

베트남 경제는 수출 호조 및 FDI 유입으로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7.6%(전년동월대비), 2024년 연간 7.1% 성장
 - (경제활동별) 건설(8.3%), 서비스업(8.2%) 성장률은 전분기를 상회하였으나, 제조업(10.0%)은 소폭 축소
 - (지출항목별) 소비(6.6%), 투자(7.2%)의 증가폭은 전기대비 확대되었으나, 수출(15.5%)은 소폭 축소

표 5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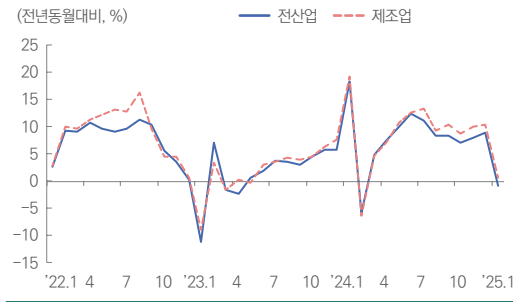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GDP)	5.1	7.1	6.0	7.3	7.4	7.6
농림어업	3.9	3.3	3.5	3.8	2.9	3.0
광업	-3.5	-7.2	-5.2	-8.7	-8.7	-6.5
제조업	3.6	9.8	7.5	10.2	11.3	10.0
건설업	7.3	7.9	7.6	8.0	7.4	8.3
서비스업	6.9	7.4	6.2	7.4	7.5	8.2
최종소비	3.6	6.6	4.9	5.8	6.2	6.6
총고정자본형성	4.1	7.2	4.7	6.7	6.9	7.2
수출	-0.7	16.3	18.0	16.9	16.9	15.5
수입	-6.3	19.2	17.1	17.0	17.1	16.1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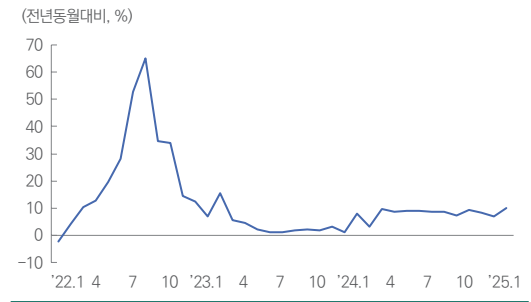
- (생산) '25.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하락(전월대비 -9.2%)
 -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5%(전월대비 -10.0%) 성장, 이는 긴 뗏(Tet, 설) 연휴(1/25일 ~2/2일, 9일간)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 기인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8.0 → (12월) 8.8 → ('25.1월) -1.0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4.11월) 10.0 → (12월) 10.2 → ('25.1월) 0.5
 - 업종별(전년동월대비, %): (광업) -12.3 (제조업) 0.5 (발전) -4.0 (상하수·폐기물) 2.4

| 그림 37 | 산업생산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그림 38 | 소매판매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소비) '25.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9.9% 증가(전월대비 3.1%)

- 뗏(Tet 설) 성수기로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관광업²¹⁾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매판매가 호조세를 지속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재화) 9.7 (숙박·음식) 12.3 (관광) 62.2 (기타) 5.2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4.11월) 8.4 → (12월) 7.0 → ('25.1월) 9.9

■ (투자) '25.1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43.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8.6% 증가

- 주로 반도체, 에너지, 전자부품 및 고부가가치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
 - 분야별 FDI 유치액(전년동월대비, %)²²⁾: (제조업) 99.1 (부동산) -6.4 (도소매) -34.9
- 전체 FDI 유치액 가운데 신규 등록된 프로젝트는 282건, 총등록자본금은 12.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3.6% 감소
 - 국가별(억 달러): (중국) 3.8 (싱가포르) 3.7 (홍콩) 1.0 (영국) 1.0 (일본) 0.5
- 반면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27.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약 6배 증가
 - 국가별(억 달러): (한국) 12.1 (싱가포르) 8.2 (일본) 5.3 (중국) 0.8 (대만) 0.7

■ (교역) '25.1월 「수출」은 332억 달러(전년동월대비 -4.0%), 「수입」은 301억 달러(-2.6%)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11월) 8.2 → (12월) 12.8 → ('25.1월) -4.0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컴퓨터·전자기기) 13.3 (휴대전화) -13.2 (기계) -4.0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4.6 (중국) -20.6 (한국) -5.5 (일본)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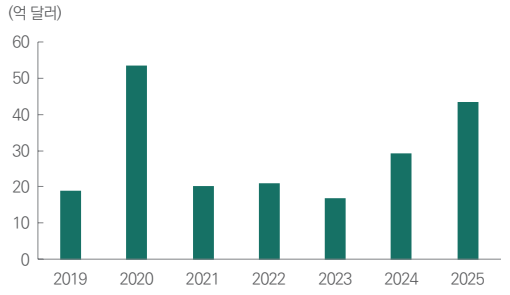
21) '25.1월 외국인관광객의 수는 약 207만명(전년동월대비 36.9%, 전월대비 18.5%)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뗏(Tet 설)을 포함해 연휴기간 국내외 관광객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

※ 국가별(만 명, 비중): (중국) 57.5만명, 27.7% (한국) 41.7만명, 20.1% (캄보디아) 10.0만명, 4.8%

22) 분야별 비중('24.12월 기준, %): (제조업) 66.9 (부동산) 16.5 (도소매) 3.7 (전기·가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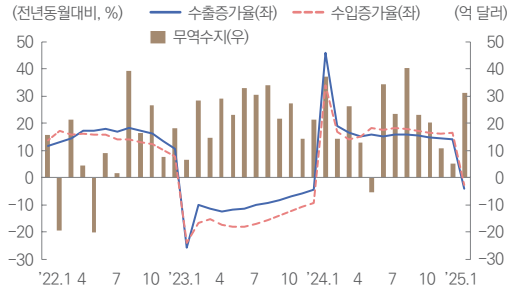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11월) 9.8 → (12월) 19.2 → ('25.1월) -2.6
- 무역수지(억 달러): ('24.11월) 11 → (12월) 5 → ('25.1월) 31

그림 39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1월)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그림 40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노동시장) 4분기 「실업률」은 2.22%

- (실업률) 4분기 실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1.4만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2.2%로 하락, 2024년 실업률은 2.2%로 전년대비 0.04%p 감소
 - 실업률 하락은 진입 기업 수(신설·영업재개법인)가 퇴출 기업 수(휴·폐업)보다 많은데다²³⁾, 수출입 및 관광산업이 호조를 보이는데 기인(통계총국)
 - 실업률(%): ('24.2분기) 2.29 → (3분기) 2.23 → (4분기) 2.22
- (고용) 4분기 취업자수는 5,21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25만명(전기대비 415만명) 증가하면서 2024년 전체 취업자수는 5,190만명으로 전년대비 585만명(1.1%) 증가

■ (물가) '25.1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전월대비 1.0%)

- 1월 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목표관리 범위(4.0~4.5%)를 하회하는 등 안정적 수준을 유지
 - 최근의 물가상승은 주로 팻(Tet 설) 성수기로 인한 식품 및 생필품 가격 상승과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비²⁴⁾ 상승 등에 기인
 - 품목별²⁵⁾(전년동월대비, %): (식품) 4.4 (주택·건축) 4.9 (교통) -0.4 (보건·의료) 14.1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4.11월) 2.8 → (12월) 2.9 → ('25.1월) 3.6
 - 근원물가²⁶⁾(전년동월대비, %): ('24.11월) 2.8 → (12월) 2.7 → ('25.1월) 3.1

23) 2024년 신규 설립기업 및 영업을 재개한 기업 수는 233,400개(전년대비 7.1%), 영업을 중단한 기업 수는 197,900개(전년대비 14.7%)

24) 환절기 계절성 독감과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의약품 수요가 증가, 일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가격이 상승

25) 소비자물가 11개 구성항목의 가중치('25.1월 기준, %): (식품) 33.6 (주택·건축자재) 18.8 (교통) 9.7 (가정용품) 6.7 (교육) 6.2 (의복) 5.7 (보건·의료) 5.4 (문화·관광) 4.6 (기타) 3.5 (우편·통신) 3.1 (담배·주류) 2.7

26) 식품, 에너지, 국가관리품목(의료·교육비 등)을 제외한 물가

| 그림 41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목표



주: 물가목표는 연간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중앙은행(SBV)

| 그림 4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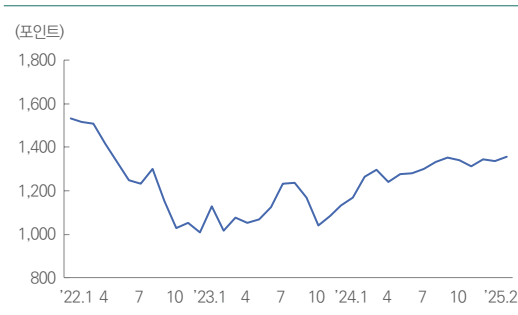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금융) '25.2월 「주가지수」, 「금리」,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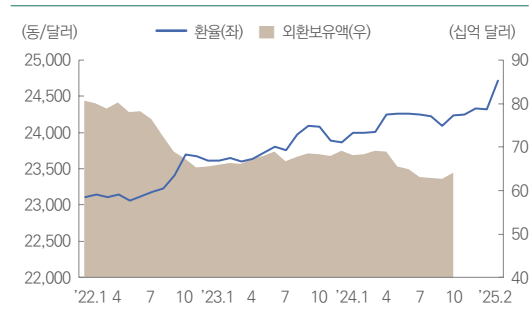
- (주가) 2월 베트남 주가지수(VN30)는 1,356포인트로 전월대비 1.4%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4.12월) 1,345 → ('25.1월) 1,338 → (2월) 1,356
- (금리) 2월 베트남 국채(10년물) 금리는 3.1%로 전월대비 0.1%p 상승
- 국채 10년물(%): ('24.12월) 3.0 → ('25.1월) 3.0 → (2월) 3.1
- (환율) 2월 미 달러 대비 동화의 환율은 24,726동으로 전월대비 1.6% 상승
- 환율(동/달러): ('24.12월) 24,335 → ('25.1월) 24,325 → (2월) 24,726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4.8월) 62.9 → (9월) 62.8 → (10월) 64.0

| 그림 43 | 주가지수(VN30)



자료: CEIC

| 그림 44 | 환율 및 외환보유액¹⁾



주: 1) 2024년 10월까지 가용
자료: 베트남 중앙은행(SBV), IMF

IV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대외경제 이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대외경제 이슈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경제분석총괄과 김경수 경제분석관(02-6788-4670)

① 검토배경

- 최근 중국과 독일에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장기 저성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 한국은 최근 2년 이상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면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중국은 2023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 내수부진, 저물가 현상이 2년 이상 지속
 - 독일은 2022년 이후 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경제하방압력이 지속
- 1990년 초반부터 20년 이상 장기 저성장을 경험했던 일본의 거시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국가별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본화 지수(Japanification Score)가 개발되어 있음
 - 일본화(Japanification)는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을 의미
 - 일본은 1992년 이른바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 일본화는 통상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는 저성장 및 저물가(혹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드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함
 - Adam Slater(2019)는 1990년대 일본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국가별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10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일본화 지수(Japanification Score)를 개발함
 - 물가, 부채, 부실채권, 생산연령인구, 자산가격, 잠재성장률, 생산성 등 주요 경제지표를 장기 저성장 리스크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지수화하는 평가 방법

■ **일본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비교하고 지역별, 국가별로 장기 저성장 리스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검토하겠음**

- Adam Slater(2019)가 제시한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장기 저성장 리스크 평가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일본화 지수는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걸쳐 10개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별 리스크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1990년대 일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국가별 경제구조의 특수성과 변화과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하에서는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비교하고 주요 요인을 분석하겠음

[BOX] 일본화 지수의 주요 내용

- **Takatoshi Ito²⁷⁾는 2010년대 미국, 유로지역 국가들의 상황을 1990년대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여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일본화 인덱스(Japanization Index)를 제시**
 - 일본화 인덱스는 「GDP갭+인플레이션율+명목정책금리」로 계산되며, 일본화 인덱스가 낮을수록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큼
- **Adam Slater(2019, 2025)²⁸⁾²⁹⁾는 10가지 일본화 요소(Japanification factors)를 제시하고 이를 점수화한 일본화 지수(Japanification Score)를 제시**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및 명목 정책금리만으로 구성된 Takatoshi Ito의 일본화 인덱스를 세부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장기 저성장의 10가지 거시경제적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별 기준점에 해당할 때, 점수를 부여
 - 10가지 요인은 Takatoshi Ito(2016)가 분석한 일본 장기 저성장의 요인을 토대로 선정 - Takatoshi Ito(2016)의 일본화 인덱스를 세부화한 지표
 - 1998년 일본의 일본화 지수가 10점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일본화 리스크가 높음

27) Takatoshi Ito(2016), Japanization : Is it Endemic or Epidemic?, NBER working paper.
 28) Adam Slater(2019), The return of 'Japanification risk', Oxford Economics Research Briefing.
 29) Adam Slater(2025), Japanification risk - down, but not out, Oxford Economics Research Briefing.

[BOX] 일본화 지수의 주요 내용

표 | 2024년 기준 일본화 지수의 항목 및 기준점

(단위: %)

	일본화 지수 항목	기준점	1998년 일본
1	근원 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5년 평균 1% 이하	-0.2
2	민간부채비율(Private Debt Ratio)	GDP 대비 160% 이상	209
3	생산연령인구 성장률(Working Age population growth)	5년 평균 0% 미만	-0.3
4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전환점	이전 20년 대비 최근 10년간 0.5%p 감소	-0.7
5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전 10년 대비 최근 5년간 0.5%p 감소	-1.1
6	비금융기업재무(Nonfinancial Corporate Balance) ¹⁾	GDP 대비 0% 이상	2.7
7	주택가격(House Price)	최근 5년간 정점 대비 5% 이상 하락	-47.4
8	주식가격(Stock Price)	최근 5년간 정점 대비 5% 이상 하락	-53.6
9	잠재성장률(Potential GDP growth)	최근 10년간 연평균 1% 이하	0.6
10	부실채권(Non-performing Bank Loan)	총대출 대비 5% 이상	11.4

주: 1) 비금융기업재무는 전체 총투자액에서 총저축액을 뺀 값이며, 해당 지표가 크게 나올수록 비금융기업 부문이 투자보다 저축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Oxford Economics, 국회예산정책처

② 일본화 지수 국제비교

■ 2024년 기준 주요국의 일본화 지수를 검토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독일 등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확대

- 주요 30개 국가 중 2024년 일본화 지수는 태국, 중국, 한국, 홍콩 등의 순으로 높았고, 미국, 유로존 국가들의 일본화 지수가 낮았음
 - 2024년 일본화 지수 상위 4개국: 태국(7점), 중국(7점), 한국(6점), 홍콩(6점)
- 일본화 지수 상위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부채비율,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감소, 주시가격의 하락 등이 주요 장기 저성장 리스크 요인
 - ① GDP 대비 부채비율이 160% 이상, ② 최근 10년간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이전 대비 0.5% 이상 감소, ③ 최근 5년간 주시가격이 정점 대비 5% 이상 하락
- 중국, 한국, 독일 등은 2019년에 비해 2024년 일본화 지수가 상승
 - 중국의 일본화 지수는 2019년 5점에서 2024년 7점으로 증가, 한국은 4점에서 6점으로 증가, 독일은 2점에서 4점으로 증가
 - 중국은 2019년에 비해 근원 물가상승률, 주택가격 등 2개 항목의 점수가 추가
 - 한국은 2019년에 비해 부채비율, 주시가격 등 2개 항목의 점수가 추가
 - 독일은 2019년에 비해 주택가격, 잠재성장률 등 2개 항목의 점수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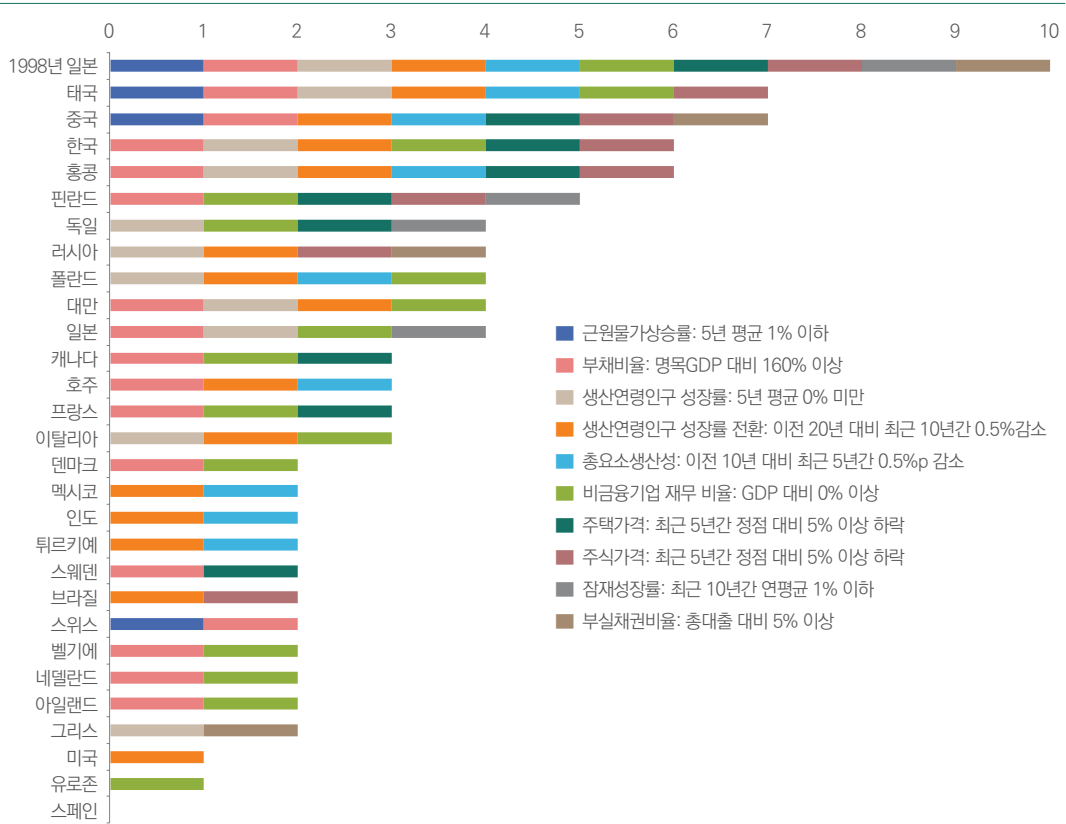
■ 미국, 유로존, 스페인 등은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완화

- 미국(1점), 유로존(1점), 스페인(0점) 등은 2024년 일본화 지수가 낮았으며,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국가들과 미국의 일본화 지수는 2019년에 비해 감소
- 일본화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장기 저물가를 벗어났고,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잠재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음
 - ① 최근 5년간 평균 근원 물가상승률이 1% 이상, ② 최근 5년간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 ③ 최근 5년간 잠재성장률이 평균 1% 이상을 유지
-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완화된 국가들은 2019년에 비해 근원 물가상승률, 자산가격(주택 및 주식), 부실대출 비율 등이 개선되면서 일본화 지수가 감소

■ 2019년에 비해 2024년의 일본화 지수가 변화했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본화 지수를 5가지로 범주화 하여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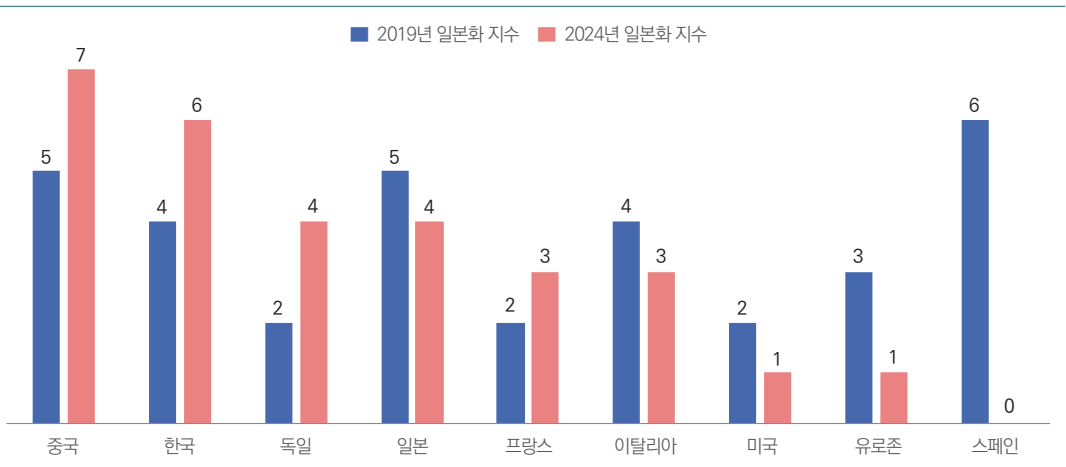
- 국가별, 연도별 일본화 지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장기 저성장 리스크 요인을 식별
 - 한국, 중국, 독일 등 일본화 지수가 높아진 국가와 미국, 유로존 국가 등 일본화 지수가 낮아진 국가들의 주요 일본화 지수 항목을 비교
- Adam Slater가 제시한 일본화 지수 항목을 ① 저물가, ② 민간부채비율 급등, ③ 생산연령인구 감소, ④ 자산가격 하락, ⑤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범주화하여 주요국의 상황을 평가

그림 1 | 주요국 일본화 지수(2024년)



자료: Adam Slater(2025), Japanification risk – down, but not out, Oxford Economics Research Briefing.

그림 2 | 주요국 일본화 지수 연도별 비교(2019년 vs 2024년)



자료: Adam Slater(2025), Japanification risk – down, but not out, Oxford Economics Research Briefing.

③ 주요 장기 저성장 리스크 요인 비교

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20~64세)의 감소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총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중장기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증대
 - 일본은 장기 저성장 전후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큰 폭으로 감소
 - 1990~2000년 연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은 각각 0.5%, 1.1%였으나 2000~2009년에는 각각 -0.5%와 0.3%로 하락
 - 노동의 실질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1%p에서 -0.2%p로 -0.1%p 하락, 자본의 실질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8%p 하락

표 1 | 일본 장기 저성장 전후 실질경제성장률 요인 분해

(단위: %, %p)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기여도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1990~2000(A)	0.5	1.1	-0.1	1.1	0.0
2000~2009(B)	-0.5	0.3	-0.2	0.3	0.2
차이(B-A)	-1.0	-0.7	-0.1	-0.8	0.2

주: 부가가치 기준 일본의 연도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과 투입요소별 기여도를 나타냄
 자료: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 한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이 최근 5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확대
 -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2022~2026년 동안 연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0.5% 이하이며, 이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장기 저성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 주요국 중 5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가장 낮은 -0.9%
 - 독일(-0.7%), 이탈리아(-0.6%) 등 일부 유로지역 국가들도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0.0%), 영국(0.4%), 미국(0.1%) 등은 생산연령인구가 최근 들어 증가
 - 주변국들로부터의 이민(immigration)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이들 국가들이 이민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할지는 불확실함

- 2005~2014년 기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대비 2015~2024년 기간 평균 성장률의 차이는 중국이 1.4%p 감소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큼
- 다음으로 한국(-0.8%p), 미국(-0.7%p), 이탈리아(-0.5%p)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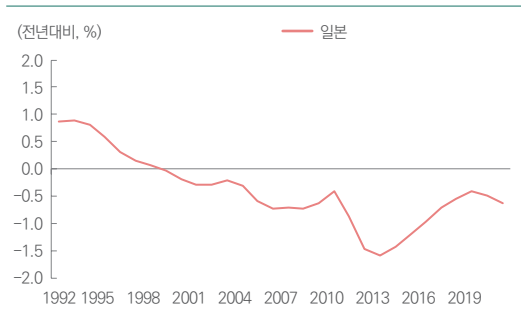
표 2 | 주요국 연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비교

(단위: %, %p)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유럽	인도
5년 평균(2022~2026)	-0.1	-0.5	-0.9	0.0	-0.6	0.4	-0.7	0.1	-0.6	1.5
10년(2015~2024) 평균(A)	-0.1	-0.6	0.1	-0.1	-0.4	0.4	0.0	0.3	-0.5	1.7
10년(2005~2014) 평균(B)	1.3	-0.9	0.8	0.3	0.1	0.6	-0.1	1.0	0.2	2.3
차이(A-B)	-1.4	0.3	-0.8	-0.4	-0.5	-0.2	0.1	-0.7	-0.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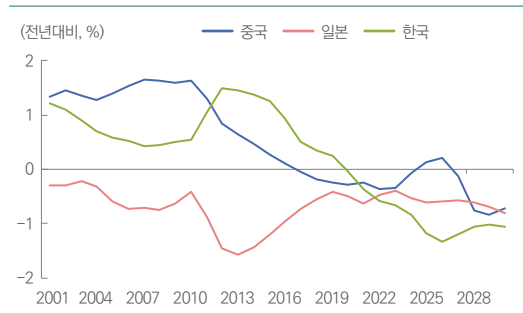
자료: UN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 | 장기 저성장기 일본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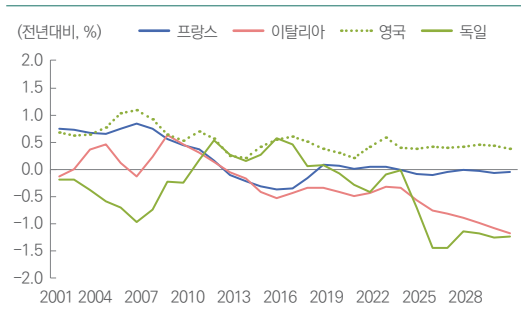
자료: UN

그림 4 | 중국·일본·한국의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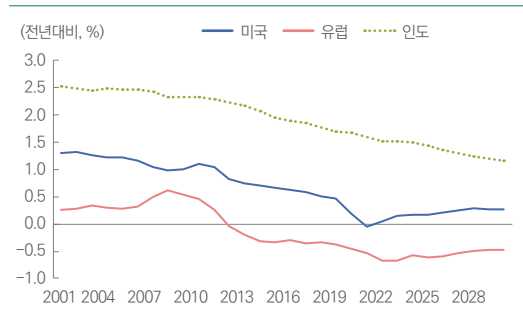
주: 2025년 이후 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UN

그림 5 | 유럽 주요국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주: 2025년 이후 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UN

그림 6 | 미국·유럽·인도의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주: 2025년 이후 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UN

나. 높은 민간부채 비율

- 민간부채(Private Debt)는 비금융 기업, 가계, 비영리 기관이 부담한 순부채를 의미하며,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 전체의 유동성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1998년 당시 명목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209%에 달하였음
 - 일본화 지수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의 기준점은 2024년 기준 160%임
- 주요국 중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의 민간부채 비율이 일본화 지수의 기준점인 160% 이상
 - 2024년 3분기 기준 중국은 199.5%, 한국은 201.9%, 일본은 180.5%, 프랑스는 214.5%
 - 중국의 민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의 민간부채 비율은 주택가격 폭등과 더불어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
 -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쟁심화로 민간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
 - 부동산 경기침체로 제조업 등 다른 부문으로 대출을 확대하게 되어 중국의 민간부채 비율 상승에 기여
 -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과잉 생산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중국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표 3 |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현황(2024년 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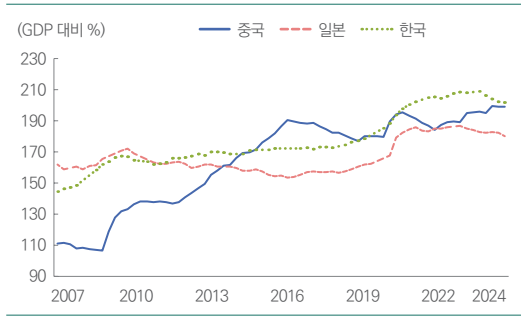
(단위: %)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1998일본
명목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199.5	180.5	201.9	214.4	94.9	138.9	142.8	145.2	209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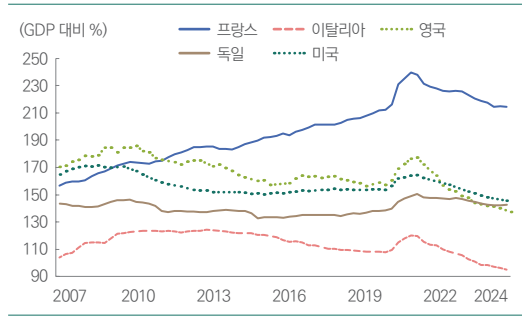
-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유럽지역과 미국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유럽지역과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회복을 경험하였고 이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부채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채 증가를 제한

| 그림 7 | 중국·일본·한국의 민간부채 비율 추이



자료: BIS

| 그림 8 | 미국·유럽 주요국의 민간부채 비율 추이



자료: BIS

■ **코로나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하락하면서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중국과 한국은 높은 민간부채수준을 유지하면서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됨**

- 미국과 유럽은 2010년대 초반까지 민간부채 비율이 과도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부채를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정을 거쳤음
 -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코로나19 이전 민간부채 비중이 160% 이상이고 부실채권 비중도 5% 이상이였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감소
- 반면 중국과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도 높은 민간부채비율이 유지되고 있음

다. 자산가격 하락

- 주택가격과 주식가격 등 자산가격의 하락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부진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경기둔화로 이어져 경제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킴
 -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저성장은 자산가격 급락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98년 기준 일본의 주택가격은 정점 대비 47.4% 급락, 주식가격은 53.6% 급락
 - 가계소비 위축, 성장전망 불투명,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 등으로 기업부문이 투자보다 저축을 선호하여 자금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
 - 일본화 지수 자산가격 하락의 기준점은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의 정점대비 5% 이상 하락
- 독일, 중국, 한국, 프랑스 등의 주택가격 지수의 하락률이 정점 대비 5%를 넘어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우려
 - 독일(-12.6%), 중국(-7.6%), 한국(-7.4%) 등의 주택가격 정점 대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주택가격이 2018~2024년 중 계속해서 상승
 - 독일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호황을 누렸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21년 8월 헝다 디폴트 위기 이후 2024년 9월까지 가격과 거래량 모두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표 4】 주요국 주택가격 지수¹⁾의 정점 및 등락률

(단위: 인덱스, %)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2018~2024년 정점(A)	132	124	128	125	114	128	137	167
2024년 평균(B)	122	124	118	118	114	124	120	165
등락률(B-A)/A	-7.6	0.0	-7.4	-5.7	0.0	-3.2	-12.6	-0.9

주: 1) 2018=100
자료: CEIC

-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주가지수의 하락률이 정점 대비 5%를 넘어서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
 - 2019~2024년 동안 한국의 주가지수의 정점 대비 하락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21.6% 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17.3%, 미국 -6.6%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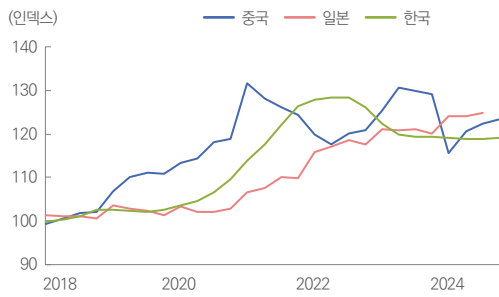
표 5 | 주요국 주가지수¹⁾의 정점 및 등락률

(단위: 인덱스, %)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2019~2024년 정점(A)	97	175	159	159	160	125	130	184
2024년 평균(B)	83	173	131	153	157	122	124	173
등락률(B-A)/A	-17.3	-1.2	-21.6	-4.2	-2.1	-2.1	-4.7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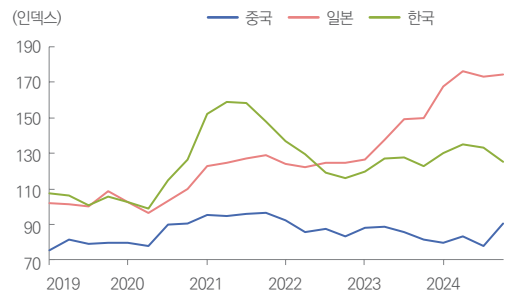
주: 1) 2015=100
 자료: CEIC, OECD

그림 9 | 중국·일본·한국의 주택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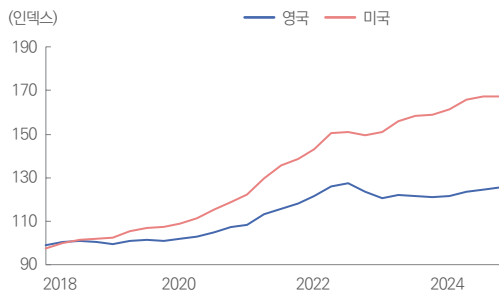
주: 2018=100
 자료: CEIC

그림 10 | 중국·일본·한국의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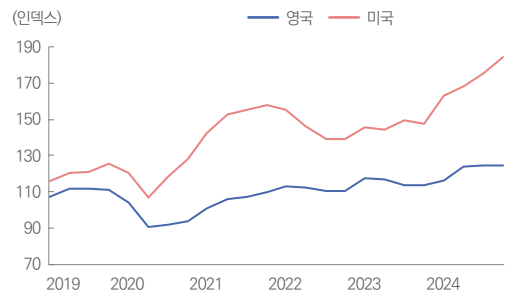
주: 2015=100
 자료: CEIC, OECD

그림 11 | 영국·미국의 주택가격지수 추이



주: 2018=100
 자료: CEIC

그림 12 | 영국·미국의 주가지수 추이



주: 2015=100
 자료: CEIC, OECD

라. 저물가

-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오히려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력하게 됨
 -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1% 이하인 저물가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
 - 일본의 연평균 근원 물가상승률은 1998~2007년 -0.3%, 2008~2017년 0.2%, 2018~2024년 1.15%
 - 장기 저물가 현상은 지속적인 소비둔화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에 기인
- 주요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을 검토하여 장기 저물가 리스크를 비교
 - 일본화 지수의 근원 물가상승률의 기준점은 최근 5년 평균 1% 이하임
 - 5년간 근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 미만인 경우 장기 저물가 리스크로 분류
- 주요국 중 중국의 장기 저물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근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0.73%로 일본화 지수의 기준점(1.0%) 이하
 - 중국의 근원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이후 2022~2022년 1.5% 수준까지 회복하였지만,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³⁰⁾
 - 반면 한국의 동기간 근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55%, 일본은 1.43%로 중국에 비해 장기 저물가 가능성이 낮은 상황
- 유로 지역, 영국, 미국 등은 장기 저물가 가능성이 낮은 상황
 - 영국, 프랑스, 독일, EU 등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근원 물가상승률이 급등, 최근 추세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높은 상황
 -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탈리아(2.62%), 프랑스(2.78%), 독일(3.03%), EU지역(3.82%), 미국(3.93%), 영국(4.16%) 순
 - 영국, 프랑스, 독일, EU 등은 코로나19 이후 각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에도 근원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음

30) 동 기간 동안 태국의 연평균 근원물가상승률은 0.87%로서 태국도 일본화 지수의 기준점 이하여서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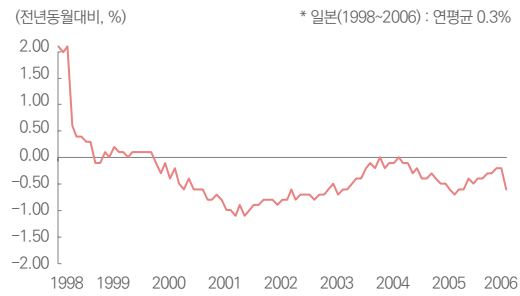
표 6 | 주요국 연평균 근원물가 상승률(2020~2024)

(단위: %)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유로	1998일본
연평균 근원물가 상승률	0.73	1.43	2.55	2.78	2.62	4.16	3.03	3.93	3.82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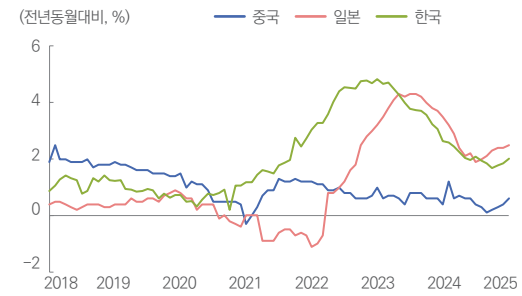
주: 1998 일본은 1998~2006년까지의 연평균 근원 물가상승률임
 자료: CEIC

그림 13 | 장기 저성장 시기 일본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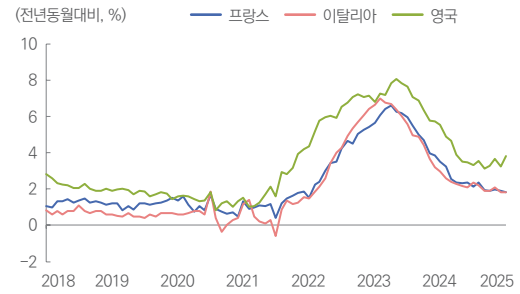
자료: CEIC

그림 14 | 중국·일본·한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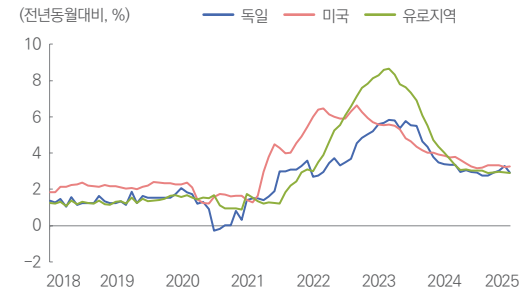
자료: CEIC

그림 15 |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CEIC

그림 16 | 독일·미국·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CEIC

마. 잠재성장률의 하락

-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투자증가 둔화, 생산성의 저하 등은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됨
 - 일본의 1986~1997년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3.12%, 1998~2007년은 0.76%로 하락, 1998년의 잠재성장률은 0.6%
 - 일본의 1992~2000년 총요소생산성의 실질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1%p로 1986~1991년에 비해 2.1%p 하락
 - 일본화 지수의 잠재성장률의 기준점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 미만
- 주요국 중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국가에게 장기적인 경제하방압력이 될 리스크 가능성
 - 일본(0.65%), 독일(0.91%), 이탈리아(0.69%)는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장기적인 경제하방 압력의 리스크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음
 - EU지역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2010년대 초반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회복하는 추세가 나타남
 - 미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8%로 나타나 영국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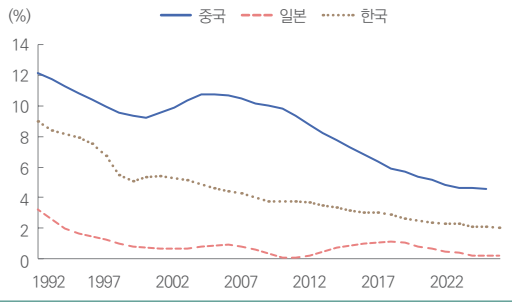
| 표 7 | 최근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단위: %)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미국	1998일본
2016~202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5.36	0.65	2.48	1.14	0.69	1.20	0.91	2.3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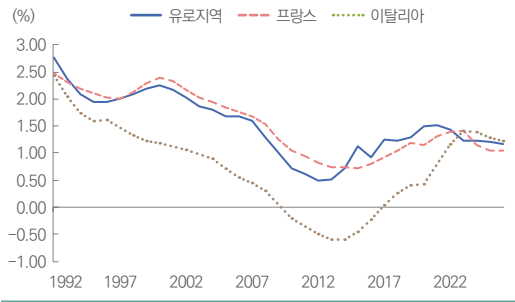
주: 추정치
자료: CEIC

| 그림 17 | 중국·일본·한국의 잠재성장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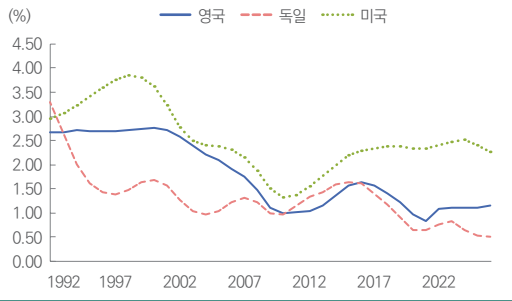
자료: CEIC

| 그림 18 | EU·프랑스·이탈리아의 잠재성장을 추이



자료: CEIC

| 그림 19 | 영국·독일·미국의 잠재성장을 추이



자료: CEIC

④ 요약 및 시사점

- **국가별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러 국가의 상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일본화 지수를 이용해 장기 저성장 리스크 국제비교를 시도하였음**
 - 다만, 일본화 지수는 1990년대 일본을 기준으로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국가별 경제구조의 특수성과 변화과정을 반영하기 어렵고, 개별 항목에 대한 점수가 단편적으로 부여되어 일본화 지수는 장기 저성장의 10가지 요인을 선정하고 각 항목의 기준에 해당할 때 1점을 부여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므로, 항목별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항목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2024년 일본화 지수를 비교검토한 결과 아시아권 국가들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으로 30개 주요국(지역) 중 중국, 태국, 한국, 홍콩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일본화 지수가 6 점 이상, 미국, 유로존, 스페인 등이 1점 이하
- **높은 민간부채 비율, 자산가격 하락, 저물가의 지속 등은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 한국, 독일 등은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비해 2024년의 일본화 지수가 증가
 - 중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 민간부채 비율 증가 등으로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증가
 - 중국의 근원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2022~2022년 1.5% 수준까지 회복하였지만,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
 - 중국의 주택가격은 2024년 9월까지 가격과 거래량 모두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민간부채 비율은 2024년 3분기 기준 199.5%로 높은 수준
 -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하락,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으로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증가
 - 독일 주택가격의 정점 대비 하락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12.6%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0.9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이는 해당국가들의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총노동투입량의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짐

- 최근 5년 평균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한국(-0.9%), 독일(-0.7%), 이탈리아(-0.6%), 일본(-0.5%) 등
- 최근 1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일본(0.65%), 이탈리아(0.69%), 독일(0.91%) 등
-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은 제조업 중심국가이며, 이들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장기 저성장 리스크 확대의 우려가 있음

■ **한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높은 민간부채 비율,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대응전략 필요**

- 한국의 경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높은 민간부채 비율,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2019년에 비해 2024년의 일본화 지수가 상승
 -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은 지난 5년 평균 -0.9%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2024년 3분기 기준 민간부채 비율은 201.9%로 주요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
 -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46%, 2016~2020년 2.8%, 2021~2025년 2.19%로 지속적으로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민간부채 비율을 낮추며,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naboo World Economy Trends & Issues

대외경제동향 & 이슈

2025년 3월호 | 통권 제1호 | 창간호

발행일 2025년 3월 2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148-08
ISSN	3059-152X

